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었던 2020년 마지막을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은 이웃과 함께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12월 26일 (토) 제 1807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2020년은 코비드-19가 휩쓸고 간 세상!

## RNS, '코로나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 일상' 을 올해 Top 뉴스로 선정

2020년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불안, 스캔들, 정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COVID-19"의 광풍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한 해였다.

71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기자협회(RNA) 회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례 없는 파괴, 즉 종교 지도자, 평신도, 추종자들의 수많은 죽음을 "올해의 Top 종교사건"이라고 결정적으로 선택했다. 또한 어떻게 교회 재정을 황폐화시키고 자선 활동을 촉발시켰는지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어떻게 뒤집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 등을 선정 이유가 포함시켰다.

RNS 회원들은 또 '2020년 종교뉴스메이커'로 조지 플로이드 (George Floyd)를 선정했다. 경찰에 의한 살해는 인종 차별에 대한 전 세계 시위를 촉발시켰고 많은 종교 활동가들로부터 열렬한 지원을 받은 '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RNS가 선정한 '2020년 10대 종교뉴스'를 관련사진과 더불어 신는다.



## '세계적 대유행' 뜻하는 단어 "팬데믹"

Merriam-Webster/Dictionary.com, 올해의 단어로 선정. Collins는 "락다운"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를 맞닥뜨렸던 2020년. 생소하기만 했던 단어 '팬데믹'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다.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와 딕셔너리닷컴(Dictionary.com)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올해의 단어로 팬데믹을 나란히 선정했다. 그리스어가 어원인 팬데믹은 1660년대부터 의학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단어. 실제로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관련 단어 검색량이 1만 3500%나 증가했다. 피터 소콜로브스키 편집자는 "대형 뉴스기사에서 '팬데믹'은 종종 기술적인 단어로 쓰였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미래에는 '팬데믹'이 이 시기를 참고할 단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가 올해의 단어로 '락다운'(Lockdown·봉쇄조치)을 꼽았다고 BBC가 10일 보도했다. '막방(먹는 방송)'의 한국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적은 '막방(Mukbang)'도 올해 사용 빈도가 크게 늘어나 상위 10대 단어로 선정됐다.

콜린스는 2020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락다운을 꼽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며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공유했던 경험을 압축한 단어"라고 설명했다.

콜린스가 선정한 올해 10대 단어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3면으로 계속)



1 COVID-19 팬데믹은 많은 종교 지도자와 평신도의 생명을 가져갔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뒤집고, 교회재정을 파괴하고, 자선 활동을 촉진하고, 종교의식을 강제로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예배중단에 대한 법적 싸움을 유발했다.



2 경찰에 의해서 살해된 조지 플로이드, 브레오나 테일러 사건은 전 세계적인 시위와 인종적 갈등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여기에 많은 종교 활동가와 단체가 참여하면서 인종갈등에 대해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과거 유산들에 대한 회개운동이 시작됐다.



3 조 바이든(Joe Biden)은 종교좌파, 특히 흑인 기독교인과 세속 유권자들의 큰 도움을 받아, 현재 진행 중인 부정선거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두 번째 카톨릭 대통령이 된다. 그는 많은 정책견해에 대해 가톨릭 사회 교리를 인용하지만 사제들은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그의 지지를 비판한다.



4 진보적 법률 해석의 아이콘이었던 루스 베더 기스버그 대법관이 87세로 사망하고, 후임으로 가톨릭과 카리스마틱교회 배경을 가진 에이미 코니 배렛이 선임됐다. 이로 인해 미 대법원은 보수적 대법관이 과반수를 선점하게 됐다.



5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해 워싱턴DC의 라파예트 광장에서 반인종주의 시위자들을 몰아내고 역사적인 성 요한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성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성공회, 다른 교회 신앙 지도자들은 일제히 분노를 표했다.



6 2020년 대선에서 일부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인 복음주의자들과 다른 종교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압도적으로 투표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대선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에 동조하고 있다.



7 지구촌 수십 개국이 중국의 인권침해 즉 굶주리고 있는 신장 지역의 무슬림 위구르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광범위한 박해와 조사를 비난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김인환 목사



푸른초장 유상열 목사



2020년 본지가 보도한 미주한인교회 10대 뉴스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할렐루야 백화점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1학년도 Zoom 겨울 특강

발행인 칼럼

뒤 돌아 보니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며칠 전 어린 손녀가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기어 올라갔다. 한 칸 올라가고 또 한 칸 올라가면서 꼭 반복하는 것이 있었다. 뒤 돌아보는 것이었다. 자기 뒤에 누가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았다. 자기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나름 용기를 내어 다음 칸으로 올라가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 삶에서 뒤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 어떻게 앞만 보고 살겠는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 사역자 중에 찬양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다.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다. 영성 깊은 찬양인도는 물론 모든 악기도 잘 다루시고 찬양 곡도 잘 만드셨다. 여러 일로 힘들었을 때 그 분이 만든 "주의 은혜라"는 곡을 부르고 또 부른 적이 있었다. 저무는 2020년에 그가 만든 찬양 그 곡이 생각났다. 가사는 이렇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사실, 지난 일을 다 기억한다면 몹시 괴로울 것이다. 지난 아픔 상처 감정들이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다면 그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오래 전 16년간에 걸쳐 인간의 망각실험을 했다고 한다. 그가 내놓은 결론은 인간은 기억한 것의 절반 정도는 1시간 내에 잊어버린다고, 하루가 지나면 약 70%, 1달이 지나면 약 80% 정도 잊어버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과거는 기억 또는 망각으로 남아 있다. 어떤 사람은 기억이 또렷하여 같은 이야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반복하면서 식사자리의 가족들에게 또는 설교 자리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수 있다. 어떤 과거는 차라리 망각이 축복인 면이 많다. 그러나 이 하나가지 만은 잊지 말자. 지난날 내 삶을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광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난날을 뒤돌아보고 그 일마다 때마다 깊이 배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내일을 기대해도 좋다. 어제가 오늘을 빛고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것이 삶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어제를 은혜로 바라보는 자들이 오늘은 나의 공로로 내일은 세상 방식으로 살 터에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의 지난 삶을 이 한 구절로 압축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다. 바울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하나님께 충성으로 보답했다. 우리에게 뒤돌아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망이 빠진 회고에 어떻게 충분한 의미가 있겠는가.

돌아봄은 앞 내다봄을 요청한다. 환란한 은혜의 과거는 찬란한 은혜의 미래를 보장한다. 2020년을 돌아보니 은혜였듯이 2021년 도 역시 은혜로 가득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 할 것인가.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 감사, 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은혜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새해를 맞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디지털 전환 통해 참여를 유도하라!

Ministry Solutions, 전 홈디포 CEO F. 블레이크에게 듣는 사역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이유

2020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19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됐고,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현장 모임을 할 수 없었던 많은 기관들은 디지털 세상의 문을 두드렸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디지털로 전환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선포된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앞다퉈 기업구조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제공하던 서비스까지 디지털로 전환하게 됐고, 이런 기류에 영향을 받은 정부와 사회기관들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박차를 가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일상'이라고 부르던 현장모임 중심의 삶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닌 '과거의 삶'이 돼 버렸다.

정부의 지침으로 '모임금지'라는 철퇴를 맞은 대부분의 교회와 사역기관들도 온라인 예배와 소그룹 및 강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많은 성도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신앙

생활을 하게 됐다. 디지털 전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 많은 영역이 디지털화 됐다. 그리고 디지털로 전환해 바뀌게 된 삶과 신앙생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전의 전통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기관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리더십'이다.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 사역도움을 제공하고자 2012년에 창립된 'Ministry Solutions'는 지난 10월, 교회와 기독교 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웨비나를 열었다. 이때 가정용 건축자재 유통매장 홈디포(Home Depot)를 위기에서 구해내 혁신적으로 성장시킨 전 홈디포 CEO 프랭크 블레이크(Frank Blake)와 대담을 통해 코로나시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랭크 블레이크는 자서전인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다(Built from scratch)"로 잘 알려진 법조인 출신 기업가로, GE(General Electronics)를 거쳐 홈디포 CEO로 재직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 홈디포를 부활시킨 인물이다.

교회의 리더가 디지털 전환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는 디지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염려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현장참석 비중이 높았다. 성도의 현장참석 여부가 이후 교회 사역참여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현장 예배에 참석한 비신자가 새신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프랭크 블레이크는 많은 기업들이 현장에 와서 물건을 보는 고객에게 머물러 있던

리더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현장참석(attendance)이 어렵거나 현장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engagement)

으로 더 현장을 찾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예배를 디지털화(digitizing a worship experience) 하는 것이 궁극

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설교와 찬양 영상 외에 추가적으로 디지털 세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성경대학과 같은 양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를 디지털화해 현장과 온라인 양쪽에서 양육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양육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양육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양육 받은 사람들을 수료식을 위해



홈페이지부터 디지털 친화적 모습으로 교회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접할 수 있도록 현장과 디지털세계 융합된 하이브리드식 사역체계 구축

시선을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를 얻는 고객으로 돌려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을 이야기한다. 고객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구경하고 있으며, 어떤 기기를 통해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어떤 경험을 얻기를 원하는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분석하면서, 현장에만 집중하던 때보다 더 고객친화적인 사업을 이뤄가게 됐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게 해야 한다. 이제는 '얼마나 더 (디지털로) 참여할 수 있는가'가 현장 참석여부를 결정한다.

디지털로 참여했을 때 경험이 좋다면, 현장참여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웹사이트, 유튜브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이 교회에 연결되게 할 때 자연스럽게 더 참여하게 되고, 궁극적

적인 디지털 참여(digital engagement)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옷가게를 직접 가지 않아도 옷을 웹사이트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듯이, 디지털로 교회 전반에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다.

리더는 사역을 포함한 교회 전체를 두고 현재 가장 먼저

현장을 방문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이후 더 많은 현장 참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현장과 온라인 참여를 구태의연하게 나눠 생각하지 않고, 융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생각해 접근할 때, 전반적인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교회 홈페이지를 반응형 형태로 만들어 컴퓨터를 사용하든, 스마트폰을 사용하든, 동일한 페이지를 방문하고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위장 내시경, 위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검퓨터 비전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진료인내: 치아(임플란트), 구강외과, 불니, 보철치료, 미용성형치료,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com**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stars and the moon, which you have set in place. - Psalms 8:3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s 8:3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20년은 코비드-19가 휩쓸고 간 세상!

(1면에서 계속)

8 전직 시어더 매캐릭 추기경에 대한 바티칸 조사에서 추기, 추기경 및 교황이 그의 성적 스캔들에 대한 보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됐다.



9 정부 당국의 현장 예배모임에 대한 팬데믹 관련 제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을 받게 됐다. 북음주의 진영에서는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를 필두로 그리고 보수적인 (Hasidic) 유대인 진영의 항의와 반항을 촉

발했다. 대법원은 뉴욕의 종교 현장예배제한에 대한 가톨릭 및 유대인 단체의 소송에 수정헌법 1조항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0 리버티대학 총장인 제리 팔웰 주니어(Jerry Falwell Jr.)가 음란한 사진과 성추문 혐의를 포함한 논란으로 사임했다. 고인이 된 북음주의적 변종자인 라비 자카리 아스와 힐송 목사 칼 렌츠에 대한 성 비리 주장도 제기됐다.



### 세계적 대유행...

(1면에서 계속)

'펠로(Furlough·휴가 또는 일시해고)', '키 워커(Key worker·필수 노동자)', '셀프-아이솔레이트(Self-isolate·자가격리)', '소셜 디스턴싱(Social distancing·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등이다.

헬렌 뉴스테드 콜린스 컨설턴트는 "언어는 우리 주변의 세계를 반영한다"며 "2020년은 글로벌 팬데믹에 지배된 해"라고 했다. 이어 "락다운은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쇼핑하고 사교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며 "현재 많은 나라가 제2의 '락다운'에 들어간 상황에서 기뻐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올해를 함축한 단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린스는 특히 한국어에서 유래한 '떡방'을 "시정자의 즐거움을 위해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동영상이나 웹캐스트"라고 정의했다. 이는 '태권도'(Taekwondo)와 함께 영어의 몇 안 되는 한국어 외래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폴린스는 올해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캠페인의 촉약

어인 'BLM',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가 왕실에서 독립한 것을 '브렉시트(Brexit)'에 빗댄 '메그시트(Megxit)', 영상 기반 소셜미디어 틱톡을 이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틱톡커(TikToker)' 등도 올해를 상징하는 단어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옥스퍼드 사전에 발간하는 옥스퍼드 랭귀지(Oxford Languages)는 2020년 '올해의 단어'를 단 하나만 선정할 수 없었다며 "전대미문의 해를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달 새로운 단어가 떠오른 기이한 한해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올해의 단어로 코로나19, WFH(Working From Home·재택근무), 봉쇄(Lockdown), 일시봉쇄(Circuit-breaker), 필수노동자(Key workers), 일시해고(Furlough),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등을 꼽았다.

BBC에 따르면 캐스퍼 그레틀 옥스퍼드사전 대표는 평소 같았으면 분명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을 법한 단어들이나 2020년은 달랐다며 "나는 이런 해를 보낸 적이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끊임 없이 유저 친화적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 모아왔던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UI)도 신경을 써야 한다. 사람들이 쓰기 불편하거나 보기에 예쁘지 않은 쇼핑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쓰기 불편하고 보기에 불편한 교회 홈페이지나 디지털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성도들과 비신자들의 수요가 무엇이고,

그는 "전무후무할 일이며 조금은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말문이 막혀있었는데 2020년은 새로운 단어로 가득했다"고 부연했다.

옥스퍼드 랭귀지 측은 "올해 가장 독특한 건 변화의 크기와 범위가 압도적이었던 점"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범지구적이고, 우리는 올해 다른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방식마저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의 정치적 격변과 사회적 갈등에 초점을 맞춰 단어들을 분류했다고 소개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옥스퍼드 랭귀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1968년 최초로 사전에 등록된 단어로 "주로 과학자,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쓰이던 전문 용어"였다. 그러나 4월경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 영어단어 '시간(Time)'을 앞서며 올해 가장 많이 사용된 명사 자리에 올랐다.

3월경부터는 '일시봉쇄' '봉쇄' '마스크' '개인보호장비(PPE)' '필수노동자' 등의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6월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며 '재개(Reopen)'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문샷(Moonshot)'도 신조

어 반열에 올랐다. 본래 혁명적인 사고라는 뜻인 문샷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이름을 '문샷 작전(Operation Moonshot)'이라고 지으며 더욱 주목을 끌었다.

두 번째는 기술 및 재택근무와 관련한 단어로 선정했다.

3월 이후 줌(Zoom)을 통한 원격 근무와 수업이 300%까지 늘어나며 '음소거(Mute)' '음소거 해제(Unmute)' 등의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Workcation)의 사용은 500%가 늘었다. 여행을 떠나지 못한 이들이 늘며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역시 전년 대비 380% 사용이 급증했다.

세 번째는 사회운동, 소셜 미디어 캠페인, 정치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다.

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위기를 반영한 '탄핵(Impeachment)'이 온라인을 강타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사회 활동과 시위가 전 세계를 휩쓸며 5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표현의 사용이 증가했다.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면밀히 분석해 디지털 플랫폼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은 디지털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디지털 전환은 불편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역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홈페이지부터 디지털 친화적인 모습으로 바

꿔야 한다.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온/오프라인 쇼 핑몰처럼, 현장과 디지털 세계가 융합된 하이브리드 형식의 사역체계를 구축한다. 교회에 관심이 없던 비신자도 교회를 한 번 경험해볼 수 있는 장을 디지털 세계에 만들어 준다.

2020년을 마감하면서, 리더의 작은 생각의 전환이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교회와 기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시론

###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날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의 신앙과 관계없이 이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는 축제가 되어 버렸고, 이 크리스마스 계절은 전 세계의 문화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면서 기독교의 절기중 가장 세속화된 절기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변질은 크리스마스가 시작될 때의 동기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는 이교도의 행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일날에 대해 특별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고, 그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후기 교회 지도자들은 서구사회에서 위대한 인물의 생일날을 지정하여 대대적으로 축제를 벌이고, 또 12월이면 태양을 숭배하는 축제가 워낙 대중적으로 거창하게 지켜지므로 이들을 기독교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생일날을 추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경이나 다른 어떤 기록에서도 예수님의 출생일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 생일날로 확정할 수 없었지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이 태양과 연관된 것을 주목하면서 로마의 동짓날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출생일로 정하였다. 왜냐하면 동짓날은 낮의 길이가 더욱 길어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출생과 사역의 의미에 가장 걸맞는 날로 인식을 하였기 때문이다. 기록상으로는 AD 336년 12월 25일 로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로 지켜졌다고 한다. 그 결과 세속문화에서 지켜지는 동짓날과 태양숭배 축제를 기독교화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가 이들과 동화되어 세속화되고 말았다.

오늘날 대개의 나라는 크리스마스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시즌은 나라와 지역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건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는 전 세계적인 축제 시즌이며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시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성도들 각자와 교회 역시 크리스마스 행사를 매우 다채롭게도 성대하게 치루고 있다. 과연 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무슨 마음으로 그 행사를 치루고 있는가?

예수님의 출생은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는 유일한 계시의 기록인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이 중심이다. 구약은 천지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피조물의 세계와 통일시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과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이후 그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메시야로 오실 것과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시 회복하여 자신이 세운 천지창조의 목적과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타락한 인간에게 맹약하셨다. 구약은 이러한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사역에 의하여 종말론적인 새로운 영광의 시대가 펼쳐질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라면 신약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야이며 그의 출생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그의 지상의 사역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선포와 언약적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기록한다.

(15면으로 계속)

### 디지털 전환 통해...

(2면에서 계속)

동시에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와 같은 외부 플랫폼을 통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더 다양하고 더 잘 만들어진 설교나 찬양을 찾아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콘텐츠나 서비스를 찾지 않게 될 수 있다. 교회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나 서

##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1.

###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0)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Genesis 22:1-19 (2) NT Exegesis Text : Matthew 5:1-12
(3) Thesis Topic : Evaluate the "Online Worship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ed Theology
(4) Sermon Text : James 5:7-11 / Amos 8:11-14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o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o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o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o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o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l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o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o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o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c) Oral Interview

###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1.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1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5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8-21, 2021).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11(Tue)-12(Wed), 2021
b) Place : Eastern Reg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estern Region: Dae Hwang Korean Church(Rev. David Y. Kwon)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1.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g) Fee: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1-12, 2021) through Rev. John Y. Song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Submit To

Rev. John Y. Song
Address : 1641 W. 185 th St , Gardena CA. 90248
Cell : (818) 282.0112 E-mail : kapcpastor@gmail.com

###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Kim Jae Ho (646) 270 5987 / ezrakim59@hotmail.com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hn Y. Song (818) 282.0112 E-mail : kapcpastor@gmail.com

##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총 회 장 : 조문휘 목사
서 기 :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 빛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지나고 있다. 특히 이때가 되면 성탄절과 더불어 맞이하는 새해 때문에 사람들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와 더불어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명절로 정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때를 간절하게 기다린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며칠을 쉬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 그런데 금년 성탄절은 아주 드물게도

가족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게 되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일조차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조치 때문이다. 일년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항상 세상에 전염병이 존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것으로 고통을 당하곤 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처럼

동시에 전 세계를 강타하고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아주 드물었다. 놀라운 것은 이번 전염병은 자타가 자랑하는 최고의 선진국이나 또는 잘사는 부자들을 예외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나라가 놀랍게도 가장 강한 미국이고, 이태리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부자들이 즐겨하는 롬바르디아 지역이라는 점이 고개를 갸웃 동하게 만든다.

오히려 가난하고 삶의 질이 빈약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낮다는 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몇 개 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백신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 이 희망이 보인다. 일 년 이상을 우리는 코로나와 치열한 전쟁을 벌여왔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 모른다.

메시아께서 오시던 그 때도 영적으로 캄캄함이 온 누리를 뒤덮고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무려 4백여 년 동안 영적 캄캄함이 지배하였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영적 캄캄한 중에 헬라에게 점령당했고, 또 다시 로마에 나라를 빼앗겼다. 어느 곳에서도 빛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캄캄함을 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것도 전혀 예기치 않은 가정애,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 그리고 뜻밖의 시기에 말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다. 오히려 밤중에 양 걸을 지켜야 했던 목자들 몇 명, 또한 저 동방에서 별자리를 연구하던 박사들,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성령의 사람 시므온, 그리고 과부로 84세가 되도록 말씀을 믿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바누엘의 딸 안나 등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 확률적으로

보면 아주 희소사치다.

그렇게 많은 수를 자랑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바리새인들, 몇 만 명에 이르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그 누구도 오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었다.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볼 때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듣고 있지만 경성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이것이 세상의 어리석음이고, 개인의 무지로 인한 연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교인의 수가 많던 적던 예배 참가자들을 20명으로 제한한다고 한다. 작은 개척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큰 교회에서는 텅텅 비게 되었다. 예배의 인원이 적다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

야말로 배후세력으로 사탄이 움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복음의 확대를 방해하고 훼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국가가 종교를 제재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데, 세계를 손아귀에 넣고 통치하게 될 말세에 태어날 제국을 말이다. 그 나라는 엄청난 독재를 구사할 것이고, 예배를 막고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을 예고한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지금 서서히 그 종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때 성도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수시로 다짐해야 할 것이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성도는 무엇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할 수 있어야 한다. 캄캄한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으로 오실 그 분을 말이다. 이것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다.

locielo88@naver.com

# 푸/른/초/장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말씀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언덕은 깎아서 평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로 하나님께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광야와 사막”은 뭘 의미합니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가 힘든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역경이나, 또는 욕심과 죄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 거친 길에 주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큰길을 닦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로, 곧 큰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길이 넓고 커서 큰길이 아니라 주님이 지나가시기에 거칠 것이 없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큰길이란 회개한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모셔 들이는데 있어서 전혀 장애가 없는 확 풀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을 온전히 깨달은 까닭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섭거나 힘들어 하지 않는 마음, 곧 진실로 주님을 모신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길은 오직 한길 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 자신이 말씀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꼭 알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을 한다고 해도 마음으로

온전히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자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이 없이 늘 똑같습니까? 우리의 기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앞사람이 온전만 이상하게 해도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 밖을 보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영 좋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잠이나 더 자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나, 또 날씨가 좋으면 좋은 태

니다.

여러분, 사도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담스럽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다”(5:3)라고 했고,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마11:28).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교회 다니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가운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우리 인생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인 것입니다. 아예 몰랐어야 하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이심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 인생에는 아주 확실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살이에서 벗어나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 자의 현저한 특성이 있습니다. 거칠고 고집스런 마음,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대 내속에 남아있으면 모든 일이나 사물을, 오히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비뚤어지게 하고 행동도 비뚤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육체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40:8).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쉽게 잘 버리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욕심이라고 다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욕심일까요? 의로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좀 갖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나태한 삶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소원도 주시고, 그 일을 해 나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루어지는 그날,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실 길을 열심히 닦아놓은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욕심 때문에 세상 일에만 파묻혀 살던 사람들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하려고 주의 강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한이 한없이 늦춰진다면,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것을 보면 혹시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절대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자연만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있었으니 그 종말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종말인 것입니다. 들에 돌아난 풀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금방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얼마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짧은 한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 2020년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으로 인하여, 지금껏 힘들게 살고 있는 올 한 해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주님의 백성 된 삶의 모습을,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 잊었던 감사를 되찾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새로운 다짐이 있는 마음의 대로를 예비하며 이 한 해의 마지막 날들을 의미 있게 마무리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ivingstonech@gmail.com

#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 이사야 40장 3-8절

로 탄 생각이 나서 교회 출석 안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들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인 되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이러한 주인과 종의 위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습관처럼 다닌다면 신앙생활이 무의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

니다. 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이 들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동그런 바퀴를 놔두고, 네모난 4각형의 바퀴가 달린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합들게 끌고 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바퀴를 바꾸는 겁니다. 됩니다. 네모난 바퀴를 동그런 바퀴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힘만 듭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하고 이 땅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해 줍니다. 당연히 기쁨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생활이 될 것이며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의 삶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일 수밖에 없고, 되는 일이 없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거칠고 고집스러운 마음이란 세상욕심을 품게 될 때에 갖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의 굴레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헛된 욕심은 실패와 사망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지만, 사람들은 그 욕심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여러분! 세상욕심 제거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오시는 대로를 닦는 일인 것입니다. 이 대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흰하게 풀려 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벧후 3:13)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리라는 구약의 예언은 456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신구약 합해서 1518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456회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으니, 1518회나 예언된 재림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이

하나님의 주권

연말을 지나면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운 10년을 계획하는 일들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거룩한 비전의 소망이 장차 되어질 10년의 사역을 좌우한다고 할 때, 나의 마음에서 생겨나 만들려진 것이 아니라 명료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들이 지나치게 앞서다 보니 힘들고 피곤함들이 지나쳐 성탄의 시즌에 느껴야 될 당연한 은혜의 감각들도 많이 둔감해짐을 느꼈다.

그때 주님께서 생각을 주셨다.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책망의 음성을 먼저 주셨다. '전 목사, 지금 너의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냥 쪽 가면 되지 않느냐. 이 길이 네 욕심으로 가는 길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막힐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뚫릴 것이 아니겠느냐?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열릴 것은 열릴 것이니, 평안하여라. 너는 내가 원하는 길에만 바르게 있어라!' 이 말씀 앞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10년의 목회주제를 확신 가운데 정하게 되었다. 부족하지만 이때 받은

무에 대한 그 성실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나 교회사역 등,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본질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열매들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막힘과 열림' 그 어떤 것이어도 모두가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쉬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세상에 교회를 주신 목적

왜 10년 비전의 첫 화두가 교회와 예배인가? 2가지 질문에서 생각할 수 있다.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삶의 지경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왜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며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가? 일평생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고백해 보지 않은 이들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과 외침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예배자를 세우므로 하나님에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를 우선해야지 왜 교회 사람이 우선인가? 사

는 것은, 한번 예배드림보다, 두 번 예배드림이, 두 번 보다 매일 드림이, 매일 새벽예배를 빠짐없이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예배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속에 주어지는 은혜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양이 쌓여야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불어 그 어느 누군가가 예배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이 은혜 받은 다 생각되면 그 예배는 질 좋은 예배였는가? 그가 은혜 받았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대부분은 마음의 감동을 들리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기준에 두는데, 그 감동은 하나님의 것인가? 예배자의 자의적인 마음의 움직임인가? 최근,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영상설교를 유튜브 영상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설교를 일반영상과 같이 좋다 싫다를 판단하는 장치가 있음을 알고는, 이런 기능을 없애도록 하였다. 설교는 청자가 좋다 싫다를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교회가 창립 40년을 앞두고, 40년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 상(賞)을 시상하고자 했다. 그때 뽑힌 이는 다음 아님, 개척멤버로서 40년을 한결

것, '하나'는 대단히 외롭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임에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마침내 '천(千)'이라는 열매를 주시며 마침내 힘세고 굳세며 든든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비전이다. 그렇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듯이, Little Rock이라는 작은 조약돌 같은 도시에서도 다윗의 손에 들린 작은 돌맹이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어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다. 한결 같이 주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당신의 성품을 따라 반드시 좋은 열매의 내려 주신다는 확신 때문이다. 실제, 그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10년간 기도했던 제목이 '일천강국'의 비전이었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열매이다.

특별하지 않은 비전

이렇게 연말 시즌을 몸부림치며, 업앤다운의 롤러코스터를 타듯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어 하며 내어놓은 10년의 꿈과 비전이 바로 '교회사랑, 예배회복, 일천강국'이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해서 춤이라도 춰 보지만, 그런데 각론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지금의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나 경제나 모든 면에 위기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함께 한다고 목사님은 설교에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렌스에서 장차연 권사

A: 좋은 질문입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전체가 53곡인데 오케스트라의 서곡(Prelude) 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찬양이 테너 솔로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이것은 이사가 40장 1절의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comfort, comfort my people). 이 내용은 이사는 미래에 일어날 꿈같은 사건을 두 가지로 예언합니다. 원근 화법을 씁니다. 가깝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생활을 끝내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멀게는 좀 더 먼 미래에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강림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사건입니다.

루터는 피신 중에 독일어성경번역, 찬송가 만들어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 위기로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9개월간 교회들은 잘 모이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위기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의 손도 있습니다. 1)백신이 12월 14일부터 출시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백신주사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종말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울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위로의 사건입니다.

위기는 기회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의 예를 들어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자 핍박이 심했습니다. 보름스 의회에 소환되어 그의 종교개혁 95개 논조를 철회하여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 용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협박과 타협안 앞에서 그는 보름스회의에 나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바 되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내 양심에 불복하는 일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소서."

그 후에 교황은 화가 나서 루터를 잡아 화형으로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작센 군주 프레드릭의 도움으로 말을 탄 기사들이 루터를 납치하여 질풍같이 말을 몰아 높은 산 고지의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이튿날 바꾸고 수염도 기르고 신분 세탁을 한 후 성에 10개월간 숨어 피신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성에 피신해 있을 때 1)이사가 40장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2)그는 숨어있는 동안 라틴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해 독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위기가 오하려 루터로 하여금 독일성경을 만들고 평신도도 성경을 읽게 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했습니다. 3)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찬양을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도 자신을 지켜주었지만 내 주님이신 예수님이 진정 나를 지켜주시는 강한 성이라고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위기 때에 유명한 찬송이 탄생된 것입니다.

구구절절 - 교회와 예배

개 교회 사역들을 두고서 구구절절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와 목회자들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연말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소식 때문이다. 대단할 것이 없다. 그러나 조금의 실수와 부족함을 함께 나누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목회자, 하나님의 자녀

가 힘써 할 일이 무엇인가? 다양한 사역보다 본질을 회복하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온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북마전 같은 세상의 전투현장에 전쟁하러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도 승리해야 한다. 교회는 그 전투의 하리아까? 송구한 개 교회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기를 소망하며 조심스레 적어봅니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2021년 특별하지 않은 비전

- 교회, 예배, 열매

은혜를 조금 나누어보고자 한다.

본질에서 다시 시작

새로운 10년의 비전이라고 해도 특별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의 주제를 다시 확정하는 수준의 내용이었다. 향후 2021-2030, 본 교회 10년의 중심주제는 '교회사랑, 예배회복, 일천강국'으로 길고 긴 생각의 매듭을 지어버렸다. 다시 본질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표어이다. 본질이 무엇인가? 나무와 열매를 예로 들어 생각하면 나무가 본질이고 열매는 그 현상들이다. 본질이 좋아야 한다. 본질인 나무가 튼튼하고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곧 그 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튼튼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질인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있으면,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당연한 소관이 된다. 농부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은 항상 본질을 먼저 들여다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맞게 준비가 잘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약속이며 법칙이다. 교회와 사역,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당연한 책

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예배자로서의 그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몸을 움직여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릴 때 성탄절 과자 하나에 이끌림을 받아 교회에 나온 것이 성도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첫 출발점이었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가? 이처럼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중요하다.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신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울려 진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심으로 열매를 넘치게 주실 것이다.

예배의 질과 양

혹자는 굳이 그렇게 교회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해야만 하는가?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온라인 시대에 익숙함과 편리함에 불속 불속 당연하듯 이야기를 꺼낸다. 더불어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사람이 변화되는가? 때가 있는 법이지. 그렇게 말하는 최근에 아주 많아지는 현상을 본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

같이 교회 예배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 40년 역사를 은혜 있게 이끌어온 복된 교회의 모습이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주의 전을 사랑해서, 그 전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지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인생이 누가 있겠느냐고 늘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성도라고 여기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다.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지킴이'라는 존재가 있다. 처음 시작은 세상에 별로 잘난 것이 없어서, 그저 교회에 자리만 지키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결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던 그 사람, 그가 마침내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일으키고, 목회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교회를 부흥케 하는 존재가 마침내 되는 교회가 바로 뿌리줄기가 튼튼한 교회,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현상적인 열매의 풍성함

교회중심, 예배중심의 줄기까지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진 그 나무라는 본질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허락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주실 열매에 대해 10년 비전의 마지막 문구를 '일천강국(一千強國)'이라는 말로 이사가 60장 22절의 말씀을 품었다. 작은

은 내용이다. 그런데 전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교회와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진리와 본질은 항상 겉보기에는 폼나고 좋아 보이는 게 아니지만, 열매도 분명히 답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새로운 10년의 비전이 끝이 나니, 개척 후부터 신년마다 가지는 40일 특색의 주제도 쉽게 풀려짐을 본다. 신년에는 직분자 교육을 강화하고, 2세 교육에 집중하며, BS 리더들을 다시 재무장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한 참동안을 지난 20년 사역과일을 모두 뒤졌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는 순간 너무 쉽게 풀려지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십년을 시작하며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인가?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예배라고 할 때, 장수가 전성터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나아갔듯이 다시 10년을 그렇게 시작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역의 아이디어가 많아도, 예배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울의 행실을 반복하는 헛농사 헛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년 40일 새벽특례 동안 레위기기를 통해 '5제사 7갈기'의 말씀들을 통해 은혜의 강수와 거룩함의 능력을 맛보고자 한다. '최고의 하나님, 최선의 예배(My Utmost Worship for His Highest)'를 주제로 천하만사를 감당기 전에, 먼저 성도 각 사람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소(So)

소족은 태국과 라오스의 메콩강 유역을 따라 거주한다. 이 지역은 매우 조밀한 열대숲으로 덮인 거친 산악지역이다. 라오-타이어로 소(So, 큰 형)라는 이름이 뜻하는 의미로 볼 때 소족은 "아우"인 라오족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했음을 할 수 있다. 소족은 가정에서는 소어(몬-크메리어)를 공식적으로는 라오어를 사용한다. 몬 크메리어 사용 종족들이



이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원후 초기 몇 세기에 걸쳐 타이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면서 이들을 밀어냈다. 즉 약 400년전 쯤에 소족은 메콩강을 따라 재정착하게 된 것이다. 소족은 점차적으로 타이족과 라오족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였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라오스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또한 주변 열강들 즉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정치적 경쟁 대상이 되었다. 반복되는 전쟁과 강요된 이주 등은 소족의 생활을 혼란케 했다.

삶의 모습

라오스의 소족 사람들은 주로 농부들이다. 이들은 쌀, 과일, 야채 등과 같은 다양한 농작물들을 재배해서 소비하거나 판매를 하기도 한다. 소족은 주위의 다른 소수종족들보다 더 가난하기에 많은 물품과 서비스를 라오족에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소족 마을사람들은 고기와 야채를 옷이나 소금과 같은 필수품과 교환하기 위해 타이족을 빈번히 만난다. 시간이 흐르며 소족은 주위 종족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특별히 타이족과 라오족의 풍습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소족의 문화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생겨났는데 전통적 화전농사법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타이족의 농사법을

따라 계단식 논에 쌀농사를 짓는다. 또한, 소족은 소를 키우며 라오족의 방법을 따라 토지를 경작한다. 땅에 농사를 짓기 전에 물소나 소가 끄는 쟁기로 땅을 미리 간다. 농사 이외에도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것도 소족의 중요한 활동이 됐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전통의 상, 언어, 교육법, 가족, 공공행성까지도 상당히 변했으며 여성들이 머리를 묶기 위해 실크 스카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지 몇몇 독특한 문화적 특징만이 보존되고 있다. 소족 사람들은 촌락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단위라고 여긴다. 각 촌락마다 수장이 지도력을 가지며,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지도력을 갖는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의 가정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신부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소

족은 전형적으로 대나무 기둥 위에 대나무 집을 짓고 초가지붕을 얻은 가옥에서 생활한다. 소족은 깨끗하지 못하며 무질서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신앙

기원전 329년 태국에 처음으로 불교가 소개됐으며 오늘날 소족의 70%가 자신이 불교도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전통적인 정령숭배상이 혼합된 불교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종종 초자연적 영혼과 대상에게 도움을 구한다. 조상숭배 역시 소족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 근처에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작은 제단이 있다. 사람들은 또한 흙, 물, 불, 바람과 같은 자연 요소와 연관된 다양한 영혼들이 있으며 또한 각

마을마다 수호신이 있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소족이 사는 지역은 파괴력이 강한 홍수피해가 잦은 곳이다. 1996년 농작물 피해로 식량 부족 현상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농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식량 공급과 기본적인 구조품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사는 대부분의 지역에는 베트남전 때 미국 전투기가 떨어뜨린 폭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따라서 들판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필요하다. 의료지원, 특별히 보철술과 물리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는 크리스천 의료선교사들이 소족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한국, 올해 가장 많이 읽힌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국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나타났다. 기독교포털 사이트는 ‘가뽀플 성경 앱’을 이용하는 50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을 집계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집계 기준은 앱 속 성경 말씀에 밑줄을 긋는 형광펜 기능이 적용된 횟수다. 1위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내용이다.



2위는 그다음 절이었다.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7).3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4-10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1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로마서 8장 28절, 이사야 41장 10절, 잠언 16장 9절, 잠언 3장 6절이 차지했다.

가장 많이 읽힌 상위 10개 성경 구절에 가장 많이 포함된 단어는 ‘하나님’ ‘그리스도’ ‘마음’ ‘감사’ ‘사랑’ ‘길’ 순이었다. 김희동 가뽀플 부장은 “검색어를 보면 갑작스러운 불안과 걱정, 염려가 많았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성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올해 가장 많이 읽힌 말씀들을 읽으며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새해도 말씀으로 힘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시시피주지사, '기도와 금식의 날' 선포

2020년이 가고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적 여파 등 어려움 가운데 미시시피 주지사가 주 전역에 걸쳐 기도와 단식을 요청했다.



테이트 리브스(Tate Reeves) 미시시피 주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된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어려운 해였고, 많은 미시시피인들에게 매우 힘든 한 해였다. 너무 많은 고통이 있어왔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를 느꼈다”고 발언을 열었다.

그는 “대우행이 시작된 이래, 동료 미시시피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나는 오는 20일 주일에도 기도와 금식, 금식의 날을 선언하는 성명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의 역사를 통틀어 해온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2020년을 마무리 짓고 2021년을 지켜주시길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데이빗 팀턴(David Tipton) 목사가 선언문을 낭독했다. 팀턴 목사는 선언문에서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우리의 시민적·종교적 특권이 존중되고,

이것이 새로운 세대에 영속되길, 우리의 변호사와 치안 판사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이를 잘 계몽하고 지도할 수 있기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하루를 맞을 때마다 계속 기도에 전념하길 요청하며, 이 같은 노력에 도움이 되는 기도의 말씀을 외우라”고 조언하며, “기도, 금식, 금식 참여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언문에 서명한 리브스 주지사는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적인 해였으나, 이를 통해 미시시피의 진정한 정신과 사랑스럽고 은유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면서 “더 나은 미시시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준 주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는 대니 파월 목사의 지도로 마쳤다.

한편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FRF)은 리브스 주지사에게 금식 선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FFRF 덴 바커(Dan Barker)와 애니 로리 게일러(Annie Laurie Gaylor) 공동대표는 리브스 주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시시피 주민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당신은 중립을 지키고 모든 시민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빼앗았다”며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는, 수정헌법에서 보호되는 양심의 문제로 매우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리브스 주지사는 과거에도 교회가 미시시피 주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해 왔다. 많은 주지사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한 시도로 예배를 제한하고 있으나, 리브스 주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시시피는 종교 모임과 예배를 제한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정부보다 크신 분이시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어선 안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SBC 총회장, 사상 첫 '생명을 위한 행진' 연설

미남침례회의 J. D. 그리어(J. D. Greear) 총회장이 내년 1월 29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48회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에 연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남침례회 역사상 총회장이 직접 이 행사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을 위한 행진은 1973년 미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한 기념일에 워싱턴DC에서 낙태를 반대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그리어는 이를 앞두고 “이 역사적인 중요한 행사에 초대되어 영광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를 지키라고 부름을 받았다”면서 “벧축의 죄 없는 아이들만큼 약한 이들은 없다. 성경은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기 품에 안으시고 만져주시길”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보살핌은 당연히 출산과 함께 멈추지 않고, 멈춰서도 안 된다. 신자들은 벧축에서 무덤까지 아이를 사랑하며, 위기에 처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돕기 위해 헌신한다”며 “이것이야말로 1973년 이후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돕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수천 개의 위기 임신 센터(crisis pregnancy centers)를 만든 이유”

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불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한 자들, 취약한 자들을 보호하거나 제도적인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싶은가?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절박함과 분명한 기회가 만나는 곳이 거의 없다”면서 생명의 행진에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행사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나이’로 유명한 팀 티보우(Tim Tebow)를 비롯해, 전 NFL 스타인 벤자민 왓슨(Benjamin Watson), 포커스온더패밀리의 대표인 짐 달리(Jim Daly), 복음주의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레함의 딸인 시시 그레함 린치(Cissie Graham Lynch)가 연사로 동참한다.

매체에 따르면, 티보우의 어머니는 필리핀 선교사로 있던 당시 임신 중 강력한 항생제를 복용했다가 합병증이 생겼으며, 이에 의사는 그녀에게 낙태를 권했다고 한다.

친생명단체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 내에서 약 6천만 건의 낙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국 VOM 중보기도제목

핍박받는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들과 함께 지상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 순교자의 소리가 21일부터 한 주간 동안 중보 기도제목을 발표했다.



△12/21 라오스: 기독교가 미국의 종교가 아님을 현지 공무원들이 알도록. △12/22 알제리: 모든 도시, 특히 남부 지역에서 성경을 나눠줄 기회를 얻도록. △12/23 우간다: 복음을 전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지역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12/24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그들 중 몇 사람은 가혹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 △12/25 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투옥된 이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도록. △12/26 키르기스스탄: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대통령을 위해. △12/27 북한: 지하교인들이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계속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홈페이지 혹은 SNS 계정을 방문하면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 세계 백신접종 180만명 기록...

전 세계에서 180만명이 넘는 인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한 나라는 중국이다.



블룸버그가 자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9일 기준 최소 10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중국은 지난 7월 의료 종사자 등 고위험 그룹을 대상으로 시노팜(중국의약품) 백신 2종과 시노백(科興中維) 백신 등 3종의 긴급 사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의료종사자 등 특수직군을 우선해 백신 접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영국에선 최소 35만명이 백신을 맞았고, 러시아는 최소 32만명이 백신을 접종했다. 영국은 지난 8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을 개시했다. 러시아는 지난 8월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 백신을 승인한 바 있다.

미국에선 38개 주에서 21만1086명이 백신을 접종했다. 플로리다주가 3만2700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주가 2만6000명, 뉴욕주가 1만9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캐나다는 6180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퀘벡주가 4020명, 온타리오주가 2000명,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가 160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14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 및 접종을 승인했다. 미국에선 20일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접종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모더나 백신은 첫 배송을 시작했으며 21일부터 미 전역에 배포될 예정이다.

펜스 부통령 생방송서 백신 맞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미 전역에 TV 생중계된 접종 장면은 ‘백신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 건물에 있는 사무용 스위트룸에서 월터 리드 군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 주사를 접종받았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은 최고위급 인사다. 이날 접종에는 펜스 부통령의 부인 캐런 펜스 여사와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PHSC) 단장도 동참했다.

펜스 부통령의 백신 접종은 미 전역에 생중계됐다. 검정 마스크를 쓴 그는 왼쪽 팔에 백신주사를 맞은 뒤 “아무 느낌도 없었다. 잘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상에서 “우리는 백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이날 아침 여기 왔다”며 “미국인들은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당신과 가족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하나를, 아마도 몇 시간 안에는 두 개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를 두고 백신의 안전과 효능을 보증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앞서 알래스카주(州)의 의료 종사자 2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실이 뉴욕타임스 보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팬데믹 속 기부와 봉사 희망자 늘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성인들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났다. 크리스천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영국의 국제 인터넷 기반 시장 조사 회사인 유고브(YouGov)가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70%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63%는 “전통적인 선물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의미 있는 선물을 받기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WorldVision)은 이 연구에서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멕시코-의 사람들은 대우행으로 인한 재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자신 기부를 유지하거나 증가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앤드류 몰리(Andrew Morley) 국제 월드비전 회장은 성명에서 “올해는 전 세계 모두에게 어려운 해였고,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이 영향을 받았다”며 “그러나 기부정성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살아 있고,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돕고 싶어하는지 보는 것은 가슴 따뜻한 일”이라 말했다.

#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12. 김순학(1876-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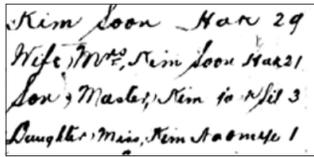
김순학은 1876년 1월 15일에 한국 창천에서 태어나 결혼한 후 완산에서 거주했다. 그는 29세 때인 1904년 10월 5일에 일본 고베에서 도리 선박에 의지해 그달 17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21세 된 그의 아내와 3살 된 아들 김태선 그리고 1살 된 딸과 동행했음을 호놀룰루 입항 명단이 확인해주고 있다.

####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 목사

김순학과 그의 가정은 늦어도 1907년에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하변)로 이주했다. 도산 안창호가 이곳에 처음 방문한 3년 후였고, 이곳에 파차파 한인촌이 세워진 이듬해가 된다. 그는 그렌우드 호텔에 취직하였다가 그렌우드 미션 호텔로 직장을 옮겼다. 1914년의 이 곳 전화번호부에 따르면 그는 그렌우드 미션 호텔에 제과사로 활동했다. 빵, 케이크, 쿠키, 파이 등 다양한 빵 및 과자류를 만들던 제과사로서의 그의 이름을 1917년까지 매해 전화번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호텔은 하변의 6가와 7가 사이의 메인 스트리트에 있었고, 오늘날 미션호텔이 되어 역사와 위용을 자랑한다. 그 외에도 이곳에서 일한 한인으로는 제과사 구 삼(Koo Sam)과 청소용역 노동자 이 H(H. Lee)도 있었다.

하변한인장로교회는 1906년에 이곳 백인교회인 갈보리장로교회가 개척한 한인교회다. 본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처다. 김순학은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전도사로 본 교회를 섬겼다.

1913년 12월 1일부터 1914년 11월 30일까지의 하변한인교회 보고서에 따르면 김순학이 전도사였고, 문영운이 영수였으며, 박충섭은 재무였고, 당회장은 백인교회인 갈보리장로교회의 헌터 목사였다. 세례교인은 20명이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세례를 받은 자가 김중원, 이 원, 박병은, 김병선, 이학현 그리고 구정섭 등 6명이었고, 학습교인은 3명이었으며, 주일에 배에 참석한 평균인원은 22명이었고, 주일학교 학생은 4명이었다. 교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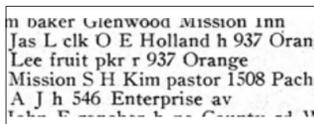


호놀룰루 입항 명단 (1904년 10월 17일)  
고등학생이 2명, 아학교 학생은 5명이었고, 초등학생은 7명이었다. 교회 경비로 헌금한 액수는 67.40달러였고, 기타 헌금은 40달러로 그해 드린 헌금총액은 107.40달러였다.

1915년 하변 전화번호부에 따르면 김순학이 하변한인장로교회의 전도사(Pastor)였고, 예배당은 파차파 애

### 1904년 가족과 함께 하와이 거쳐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하변) 도착 1913-1916년 하변한인장로교회 전도사... 동포사랑 나라사랑 본 보여

비뉴 1508번지에 있었다. 그해 3월 30일에 미국 북장로교 내지선교사인 라클린 목사와 한인 순회목사인 민찬호 목사가 본 교회를 방문했다. 이날 본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성대하게 환영회를 개최하였는데 방문한 두 목사는 설교하였고, 중국 선교사를 역임했던 라클린 목사가 중국어로 찬송을 불렀고, 본 교회 여학생 송마리는 영어 찬



1916년 하변 전화번호부의 한인장로교회

송으로 화답했다. 그해 4월 22일자 신한민보는 '하변교회에 친구 직임'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인근 옐랜드로 이주한 하변한인장로교회 영수 문영운을 위하여 전별식이 있었고, 한국에서 다년 교회 일에 종사한 하도원 장로가 문영운의 영수직을 이었으며, 최재덕을 집사로 선정하였다고 보도했다.

1914년 12월 1일 이후 1915년 11월

30일까지의 하변한인장로교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례교인이 26명이었는데, 이중 5명이 감리교회로부터 이영하였으며, 지난 1년간 새신자가 6명이었고, 1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학습교인은 2명이었다. 평균 예배출석수가 25명이었고, 주일학교 학생은 평균 12명이었다. 교인 중에 고등학생이 2명이었고, 초등학생은 11명이었다. 교회 경비를 위해 드린 헌금은 86달러였고, 기타 헌금이 15달러여서 총 헌금액은 101달러였다. 자비량 한인 교역자가 3명이었으니 김순학 외에 하도원이 영수로 최재덕이 집사로 계속 사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백인교회에서 본 교회를 돕는 사역자가 4명이었는데 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아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1916년 하변 전화번호부에 김순학이 하변한인장로교회 전도사로 기재되어 있다. 교회주소도 1915년과 같았다.

그런데 그해 9월 28일자 신한민보에 따르면 김순학은 평정회, 신광회 그리고 마준봉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북쪽 지역의 윌로우스에서 140명모를 경각하였고, 1917년 하변 전화번호부에는 하변한인장로교회 목사가 조득린(T.R. Cho)으로 되어 있어 조득린이 1916년에 하변에 온 것이다. 이로써 김순학이 1916년 봄까지 하변한인장

#### 동포사랑과 나라사랑

김순학은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동포사랑에도 힘썼다. 1907년 6월에 공립협회에 가입하여 공립신보에 기부하였고 공립협회 회비를 납부하였으며 이듬해에도 기부하였다. 1910년 5월에 화재 구제에 기부금을 냈고 그달에 클레아몬드 학생양성소에 3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듬해 11월에 신병으로 고생하는 동포에게 1달러를 후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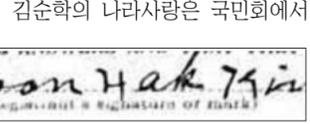
1914년 1월 이인 초가 닐사 따에서 세살을 떠났을 때 25센트를 부조했고 그해 5월에 서간도 기항 구휼금으로 3달러를 기부했으며 1915년에 우렛랜드 동포 조원두의 부인의 참사를 듣고 기부했고 1917년 7월에 위의 학생양성소에 기부했으며 1918년 1월에는 하변공립병원에 입원 중인 전낙원, 이경의 그리고 박재



하변한인장로교회(1918년 이후)

빈을 위문했고 그해 2월 이경의 병비의연으로 5달러를 후원했다. 김순학의 나라사랑은 국민회에서

김순학의 날인(1918년) 다. 1911년 11월 11일에 김순학이 국민회 하변지방회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국민회에서 활동하였다. 그달 18일 특별회로 모여 지방자치제도를 조직하고 응용규칙 17조를 기초하였는데, 거두지 질서를 정돈하며 폐류를 숙청하여 전체 동포의 행복을 증진하였다. 이듬해 12월에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가 1913년 12월에 회장으로 재선임되었고, 1916년에 법무원으로 선출되었다.



김순학의 날인(1918년)

그가 1917년에 대의원으로 선임된 그해 8월 29일에 제8회 국치 기념식에서 기도와 국치 기념사를 담당했고 1918년 1월 재무로 선임되었고 그해 2월에 모 식당에서 23명이 모인 가운데 하변 지방회 창립기념식에서 '우리 하변지방회 역사'를 담당했으며, 그해

11월에 명년 대의원으로 선임되었고, 국어학교 경비모금을 위하여 구역 안에서 후원을 받기로 하고 사전 위원에 함순학으로 선정하였는데 함순학이 김순학이 아닌가 싶다. 그해 12월에 새 임원을 조직하면서 재무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그는 매년 국민의무금을 납부하였다.

1919년 2월 27일에 발간된 신한민보의 '김순학 씨 비명횡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하오 4시에 당지에 거류하는 김순학 씨는 박충섭 씨의 가족과 같이 마차를 타고 농장에 나가다가 중로에서 마차에 메인 말이 부지중에 총알같이 달아나는 바람에 마차 위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떨어질 때 김순학 씨는 두골이 깨어져 곧 정신을 잃어서 병원에 입원시켜 의사의 수술을 받았으나... 그 날 하오 6시 10분에 세상을 떠났다". 이튿날 오전 10시에 하변 워임프터즈 교당에서 하변거주 동포 13명과 인근 나성과 옐랜드와 클레아몬드에서 방문한 동포 19명과 서양인 14명 등 46명이 모인 가운데 민찬호 목사의 주례로 하변 에버그린 공원묘지에 그를 안장했다. 그렌우드 미션 호텔의 소유자인 프랭크 A. 밀러는 김순학이 여러 해 제과사로 취직했던 본 호텔로 조객을 초청하여 오찬을 대접했다.

#### 소천

김순학의 묘비에는 '고에 김순학 군 묘'라고 적혀 있어 그의 호가 '고에'가 아닌가 한다. 오른쪽에는 '대한인국민회원, 흥사단우'라고 적혀 있어 나라사랑에 앞장섰던 그가 한 달 뒤에 있었던 삼일독립만세 소식을 듣지 못하고 눈을 감아 안타깝고, 그가 안장된 묘지에 아들 김태선(Joseph Kim)이 1925년 11월 24일에 향년 26세로 안장되었으니 더욱더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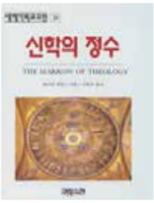


김순학의 묘비

damien.sohn@gmail.com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b>동부(NY, NJ)교회</b></p>						<p><b>뉴욕갯세마네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Tel: (516)520-2004, www.nygetsemang.org</p>	<p><b>뉴욕몽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진국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p>			
<p><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Tel: (718)265-2584, www.fkcb.org</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p>	<p><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Tel: (718)637-1470</p>	<p><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Tel: (718)461-2810(Fax: 3411)</p>	<p><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철 www.pccolny.org, Tel: (516)387-9940, 9942(EM)</p>	<p><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Tel: (718)265-2584, www.fkcb.org</p>					
<p><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p>	<p><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p>	<p><b>베이사이드 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종식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p>	<p><b>사랑의동산교회</b> 담임목사: 강신용 Tel: (516)584-0862</p>	<p><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p>	<p><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Tel: (718)886-4040, www.kapcc.org</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b>하와이 및 북미 지역</b></p>						<p><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김성훈 Tel: (604)584-5780, www.pccov.org</p>	<p><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헌 Tel: 011-55-11-3270-9233, 3277-3141</p>	<p><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p><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Tel: (56)2-222-7628, (56)2-341-0389</p>	<p><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p>
<p><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Tel: (808)585-1859</p>	<p><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임규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p>	<p><b>멕시코 현지인 교회</b> 선교사: 임함곤 선교사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p>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2)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4)

6) 신앙에 있어 칼빈과의 연속성

에임스는 신앙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칼빈과는 다른 강조점을 갖고 있었으나 칼빈의 신학적 관점과 명백히 연속성 위에 있다. 칼빈은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기반을 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으로 정의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비로 우리를 자신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과

은 언약신학은 에임스의 신학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2. 구조와 내용분석

##### 책의 구조

"신학의 정수"의 구성은 일련의 범주들로 진리를 나누고 세분하는 라무스 체계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에임스는 제1권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교리로서 신학은 첫째 신앙(1권 1-41장) 곧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를 말하고, 제2권에서는 순종(2권 1-22장) 곧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고 하나님

째로 다양한 속성들 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1권 4.12-67), 둘째로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1권 5장) 확인된다. 또한 하나님의 유효성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유효성을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능력(엡1:11-36)으로 정의했다(1권 6장).

#### 2)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는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그의 유효성(권능)으로 제일 먼저 하신 일로 가르친다(1권 7장). 그는 모든 일이 창

으로 인해 일어난다(1권 18-23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구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삼중 직무를 주셔서 보내셨다(1권 19장).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고, 우리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가지셨다(1권 20장).

#### 3) 전인적인 의지의 행동인 신앙

신앙은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 심령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모든 약에서 구원받고 모든 선을 따르게 된다(시37:5, 램17:7). "믿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증거를 인정하는 지성의 행위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지가 감화(感化)되며, 의지를 통해 이와 같이 증명된 선을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신앙은 의지의 행위로 불리울 수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신앙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요1:12,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신앙은 선행행위이며 전인적인 행동이다. 이는 결코 지성만의 행위가 될 수 없다(요6:35, 내게 오는 자는...나를 믿

##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 한 해가 아니었나

쫓기듯 사느라 뒤돌아 볼 여유 없이 일 년을 돌아다시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니 한 해의 못 다한 일들과 한숨 내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마음속에 걱정할 일이 태산처럼 밀려와서 늘 무너진 마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오히려 울컥 질투와 부러움, 우울함과 한숨이 되어 살아갈 용기마저 잃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여름이 오면 덥다고 투덜대고 겨울이 오면 춥다고 옷을 껴입고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 인생에 어김없이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는 하나님의 경륜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오는 계절을 살아내기에 바빴던 한 해가 아니었나.

어쩌면 우리는 일초가 아깝다고 목숨을 내걸고 바쁘게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정작 너무도 많은 시간을 TV앞에서 덧없이 시간을 보내고 살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사람 사이에 부대끼며 살면서 내가 상처를 준 것은 또 받은 것은 무엇인가 늘 헤아려보며 부질없이 생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훌쩍 가벼워진 한 해가 아니었나.

성전을 부지런히 밟고 다녔지만 입으로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늘 피곤한 육신과 영혼의 몸짓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루의 삶에 조그만 파도가 출렁거리어도 두려워 떨며 끊임없이 보채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순간보다 지는 순간이 허다하게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평안이라. 그래서 절벽이 앞을 막는 문제를 앞에서 매서운 바람을 듣고 청청히 서있는 겨울나무처럼 고요하게 주님 앞에만 엎드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갖고 이 해를 마감하면 좋겠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천 가지인데도 무엇을 받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며 더 주실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사는 가련한 우리를 보고 가슴 아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절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한 가득 빛이 되어주셨고 행여 어려움이 몰려올까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사는 우리네 인생에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린 한 해의 기쁨만 일들도 슬펐던 일들도 또 수만 가지의 잘못 살았던 일들도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온 맘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한해의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changsamo1020@gmail.com

## 제1권 신앙-무엇을 믿는가 제2권 순종-어떻게 신앙을 실천하는가

### 두 핵심범주 신앙과 순종은 에임스 전체 신학체계 원천 형성

인간의 만남 속에서 감정의 역할을 기술하면서, 칼빈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온전히 뜨거우 열심히 없다면, 지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작별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칼빈은 "일단 어떤 사람이 감정의 자극을 받으면, 감정은 철저히 그를 사로잡아 그를 감정으로 이끈다"라고 말한다. 칼빈과 똑같이 에임스도 신앙을 정의하고 회심을 가르칠 때 감정적 차원과 의지적 차원을 동등하게 강조했다.

이제 신앙의 중심 항목으로 봄으로서 에임스는 참된 경건은 죄인인 피조물과 구속하시는 창조주 사이의 언약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를 원했다. 의지의 행위로서 신앙은 언약에 대한 순종의 참된 표지이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제공된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

게 대해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가로 나뉜다. 이 두 핵심범주인 신앙과 순종은 에임스의 전체 신학체계가 흘러나오는 원천을 형성한다. 1권에서 신앙의 개념과 2권에서 순종에 대한 칼빈주의적 소명에 입각한 순종을 다룰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다양한 표지와 열매들을 통해 자신의 신학체계를 설명한다.

#### 1) 신앙과 하나님의 충분성

그는 신앙을 '마음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신앙을 전인격적인 의지의 행위로 규정된 후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관해 기술한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본질(1권, 4-5장)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충분성과 유효성(권능)으로 나누어 내용을 전개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피조물이 필요로 하는 전부라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첫

조와 섭리 속에 예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히 선하신 기쁨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했다(1권 8.9장).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는 창조질서 전체에 미치지 만 하나님께서 지성적인 피조물인 인간에게 행하시는 특별한 통치는 행위언약이다. 그런데 이 조건적인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간은 비참하게 죄에 빠졌다. 인간의 타락은 영적이고 육적인 죽음과 원죄의 유전을 포함한 심각한 영원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술한다(1권 11-17장).

#### 3) 중보자와 구속자 되심

그러나 인간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인간의 정죄는 구속을 통한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된다.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목적'

는 자는. 신앙이 항상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의 행동이 따른다. 지성과 관련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신적 증언에 의존한다. 하지만 신적 증언은 하나님께 대한 의지의 진정한 전환 없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요3:33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신앙은 증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신앙은 그 본성상 어떤 인간적 지식보다 확실하다. 왜냐하면 신앙은 무오류성(無謬誤性)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그가 믿는 대상으로 인도받기 때문이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우리를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딤후4:10).

hyojungyoo2@yahoo.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성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ck.org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아특별예배: 오전 5:30 토요일특별예배: 오전 6:30 토요일한국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3부: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아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Figueroa Blvd., L.A., CA 90027
<b>머무는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3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 장소)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년영아예배: 오전 9:15, 11:30 밀애예배: 오후 1:30(수요일)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년영아예배: 오전 9:15, 11:30 밀애예배: 오후 1:30(수요일)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www.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엘리스가족원</b> 원장: 박운송 목사 (A.A.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목사) 상임사역: (월-금) 오전 9:45(본당) 사택대강: 1. 영아사역 2. 교회 광산도 여성회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방학사역 4. 배려의 사역 http://www.el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제기도전담: 365일 24시간 온전	<b>주님새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 배: 오전 9:45(10월)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b>핼(PIM)선교회, 교회</b>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아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목부: 오전 11:00	<b>히슬소망교회</b> 담임목사: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모임: '영성경이 임하여'에 오전 9:30 오후 7:0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른 아침 책상에 앉아 경건의 시간을 갖고 카톡을 열어보았습니다. 새벽 2시경에 보낸 후배목사님의 사모님 글이었는데 내용은 자기 남편 목사님이 코로나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지금 혼수상태라고 기도도 도와달라는 절박한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평소엔 곁에서 가까이 지내던 분이 아니고

멀리서 지켜보고 열심히 일군이라 생각하고 응원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선배이고 목회 현장에 있고 부흥회도 인도하는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다급한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이제 내가 어떻게 저 사모님의 강력한 도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을

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겐 그들을 도움 능력도 기적적 신유를 일으킬 은사도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시편 121편의 기자의 한 석인 듯한 외침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특

별히 우리를 도움 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혹 어디에 누가 나를 도울지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갖습니다. 이는 신자나 불신자의 차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교인도 목사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가 세계적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나 끝이 날까? 이 곤경의 터널을 어떻게 잘 통과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극심한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여 이겨 낼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극한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위기의 때에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참으로 나를 직접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도와줄 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편기자의 외침에

공감하게 되고 그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시121:1).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를 정말 도울 수 있는 도우미는 천지를 지으신 아훼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무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은 전능한 도우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눈물과 간구로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화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움 이는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시편 121편의 신앙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들의 큰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주님으로 인해 즐겁고 복된 성탄절과 송구영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cyd777@hot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고관절 골절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각종 암이나 심장병, 중풍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가되는 질병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엉덩이뼈와 다리뼈 사이의 관절) 골절을 포함한 각종 골절이다. 고관절 골절은 다른 부위의 골절에 비해서 높은 사망률과 합병증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70대 중반의 여성 김 모씨는 아파트 계단을 걸어 내려오다가 미끄러졌다. 처음에 넘어져서 주저앉은 후 통증 때문에 엉덩이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었다. 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온 김씨는 엑스선 검사상 우측 고관절 골절(hip fracture)이 보였다. 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고관절이란 엉덩이뼈와 다리뼈 사이의 관절을 말하는데 고령인 경우 골다공증이 진행된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외상을 입을 때 쉽게 부러질 수 있다. 고관절 골절은 미국에서 1년에 35만 건 이

상 발생하고 그중 약 4분의 1은 골절 후 1년 내에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절반 이상은 사고 전의 보행능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통계가 있다. 2050년경에는 미국 내 고관절 골절 환자의 숫자가 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층은 고관절 골절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고관절 골절은 65세 이상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85세 이상이 되면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특히 평소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여성에서 더 흔하다. 그 외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흡연, 과도한 음주, 장기간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위험이 높다. 또 시력 장애, 무릎이나 허리 관절염으로 보

에 수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한데 특별한 내과적인 문제가 없으면 입원 24시간 내에 수술하는 것이 좋다. 고관절 골절 환자는 수술 후 회복기간 동안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폐렴이나 하지혈전, 욕창 등의 내과적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관절 골절은 일단 발생하면 그 자체로 고령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이 진단된 경우는 골다공증약을 복용하면서 골다공증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시력 교정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목욕탕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부착하거나 좌변기나 샤워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거실 바닥의 어지러운 물건들은 자주 정리해서 발

보행 능력 회복 불가능한 합병증 주의

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 중풍 후 하지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뇌의 조정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데 이때 더욱 고관절 골절을 주의해야 한다. 고관절 골절은 조기에 진단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주의한다. 관절염이 심한 경우는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면 예기치 않게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문의:213-383-9388

UMC 한교총 52교회 연합 신년특새

1월 중순엔 “뉴노멀 시대의 청지기” 주제로 세미나

동성에 이슈로 혼란 가운데 있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내 입장이 나뉘어져 먼저 보수적인 입장의 한인교회와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입장의 타인종 목회 및 여성 목회자가 구별됐다.

보수적이며 ‘함의에 의한 교단 분리’라는 입장을 가진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가 2019년 먼저 조직됐으며, 이어 연합감리교회에 남기를 원하는 PSKUMC가 안명훈 목사를 회장으로 해 뉴욕과 뉴저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한교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 15만 달러를 모금하고 4차례에 걸쳐 30여 교회를 지원했다.

이어 한교총은 2021년 1월 4일부터 9일까지 특별새벽 연합성회인 “모든 이들을 위한 새벽 예배, 모이.새”를 미국 내 52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강사는 이성현 목사(샌디에고 KUMC), 김광태 목사(시카고제일KUMC), 이진희 목사(텍사스 웨이코KUMC), 이기성 목사(뉴저지메타니교회), 김세환 목사(아틀란타한인교회) 등이다. 한교총 회장 이철구 목사(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준비한 집회로, 삶의 모든 분야에 드리워진 어둠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우리 한인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며,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총은 신년 특별새벽 연합성회 이후 1월 중순부터 후리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 등 14명의 강사진을 초빙해 “뉴노멀 시대의 청지기”라는 주제로 신년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순절 기간인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미 전역의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함께 하는 특별새벽 연합집회를 “소망과 위로-이사야”를 주제로 준비 중이다. 이번 집회나 한교총 사역, 행사에 대한 문의는 한교총 총무 김일영 목사(체리힐제일교회, ikim89@hotmail.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Advertisement for 'a kids book about CHANGE' by David Kim. The ad features a colorful background with the title 'a kids book about CHANGE' in large, stylized letters. Below the title, it says 'kids books that matter.' and 'Ages 5+'. There are icons for 'Unknown', 'Adaptability', 'Courage', and 'Patience'. A quote reads: "이민자의 자녀로, 청년 목회자로 사는 저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나 어른들에게도 변화는 필요하다". The author's bio mentions David Kim was born in Seoul, Korea, and is now pastoring in Silicon Valley. The book is available at akidsbookabout.com.

## 교계 기사판

### 미드웨스턴 2021년 봄학기 학생모집

미국 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중의 하나인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이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위한 사역학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선교와 교육 분야에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온라인 한국어강의로 미국, 한국, 세계 어느 곳에서든 수강 졸업 가능하며 GAU졸업 후 신학 또는 목회학 석사과정 등의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총 3학점 3학기 과정, 개강일은 2021년 1월 18일

▲문의: (503)330-2971, park@wcmweb.org 박창성 목사

### LA카운티정신건강국 한인프로모터 모집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정신건강프로모터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LA카운티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봉사(오펜트) 카운티 거주자여도 일하는 곳은 LA카운티에서 근무, 타인과 지역사회 개선을 돕고자하는 자, 본인의 삶속에서 정신건강관련 경험자, 보건 가정폭력 HIV 등이나 기타 다른 분야에서 프로모터 경험자 등이다. 유급교육시간이 포함된 기초교육을 완료하고 최종시험을 통과할 때 활동이 가능하다(영어교육 제공, 통역제공 예상). 프로모터가 되면 지역 한인사회의 단체, 교회, 학교, 이웃, 도서관, 공원 등에서 프리젠테이션 장소를 골라 한국어로 교육을 제공하게 되며, 한 달에 최소 4회의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된다. 프리젠테이션에 요구되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요구된다. 프로모터는 활동시간에 대한 급여(시간당 15.38-22.36달러)가 지급되며 소셜번호 소지자이어야 한다. 영문이력서(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DMHPromotores@dmh.lacounty.gov로 보내면 된다.

▲문의: (213)364-5087



2020 코로나극복 디디허쉬 희망콘서트에서 전 출연자들이 함께 공연하고있다

## 미래에 대한 두려움 버리라...

### 2020 코로나극복 디디허쉬 희망콘서트

2020 코로나극복 디디허쉬 희망콘서트가 19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로 열렸다.

PJ와 스틸라 사회로 열린 이날 콘서트에서 패트리샤 스틸먼 디디허쉬 자살예방센터 총책임자는 “올해는 모든 문화와 모든 지역사회에 매우 힘든 해였다. 기억해야 하는 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라며 “희망콘서트를 통해 즐거운 시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캐롤린 레비탄 디디허쉬 자살예방센터 전화상담소 책임자는 “디디허쉬의 목표는 함께 모여 즐기며 정서적 지원과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클리닉 세라고 원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증 환자가 늘었다. 불안증의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지금과 여기에 집중하면 좋겠다”며 “미래에 대

한 두려움은 늘 있어왔다. 그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혼자만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가족끼리 서로 배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를 위해 첫째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 30분씩이라도 걸으면서 생각하며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둘째 외출이 힘들 경우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셋째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넷째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대화는 상대방이 꺼리는 주제는 피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상담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기타리스트 랜디김, 색소폰 연주자 켈빈박, 보컬리스트 이민우, 유수진, 김은진, 헌터가 출연해 격조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박준호 기자)

## LA카운티 실내예배 조건부 허용

### 하베스트룩교회 승소...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미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LA 카운티가 실내 예배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가주 대법원은 패시디나의 하베스트룩교회가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내 예배를 진행해도 좋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지난 19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시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다른 가정과 최소한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이다.

지금까지는 실내 예배 관련 지침은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퍼플’ 지역에서는 ‘절대금지’였으며 두 번째로 심한 ‘레드’

에서는 정원의 25% 또는 100명 중 적은 숫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이었다.

지난 15일 기준에 따르면 가주 58개 카운티 중 LA, OC를 포함한 55개가 퍼플인 상황에서 실내 예배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과 카운티 정부의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LA 카운티 내 교회는 가정당 최소 6피트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한 선의 인원을 수용, 실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카운티 보건당국은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 입원률 상승으로 병상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의료진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실외나 온라인 예배를 하라고 덧붙였다.

(정리: 박준호 기자)



퀸즈장로교회 '사랑의 바구니' 배부에 앞서 기념촬영 했다.

## 퀸즈장로교회 '사랑의 바구니' 행진 계속

### “측량할 수 없는 은총” 성탄축하 찬양제도 열어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랑의 바구니’ 행진을 계속했다.

911사태가 일어났던 2001년에 뉴욕시 경찰과 소방관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된 사랑의 바구니는 올해로 19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성탄과 연말을 맞으려는 뜻에서 더 의미 있는 나눔이 됐다.

이번 바구니 제작은 교인들이 교회에 자유로이 올 수 없는 상황 탓에 주로 교역자(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들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6일 오후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플러싱 지역 소방서와 경찰서, 주민들에게 100여개의 바구니를 전달했다.

바구니에는 각종 과일과 과자, 티, 등을 담았다.

담임 김성국牧사는 “어려운 시기지만 그럴수록 나눔의 의

미가 크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20일 오후 4시에는 성탄 축하 찬양제를 온오프로 개최했다.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2부 찬양에 앞서 김성국 목사는 예배소서 3장 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암살사건을 예화로 들며 “은총은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군가?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 은혜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 남가주한인음악협회 전 임원 유임

### ‘희망찬양’ ‘2020성탄축하찬양’ 영상 제공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는 최근 임원회를 갖고 전현미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 유임을 결정했다.

2020년 정기총회는 코비드 19으로 잠정 연기됐으며 임원 선거도 모두 모일 수 있을 때 열기로 결정했다.

전현미 회장은 “2020년 회기동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팬데믹으로 취소됐다”며

“2021년에는 협회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협회는 ‘코로나 희망찬양’과 ‘2020 성탄 특별 축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Virtual Choir로 영상을 제작해 찬양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에 제공한다.

(기사제공: 남가주한인음악협회)



제3회 남가주 어린이 동요축제에서 소프라노 김종숙, 클라리넷, 테너 오위영, 양두석이 특별공연을 하고있다

## 30팀 참가...합창단, 독창, 악기연주 등

### 제3회 남가주 어린이동요축제 온라인으로

보나기획(대표 이혜자)이 주관한 제 3회 남가주어린이 동요축제가 지난 4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동요축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소프라노 김종숙 테너 양두석 사회로 열린 이번 동요축제는 보치엘레스티 어린이합창

단, 코헨가 초등학교, 시더레인 초등학교, 아놀드초등학교 등 30팀이 참여했으며 독창, 중창, 바이올린 연주, 가야금 연주 등 다채로운 연주를 선보였다.

또한 이날 소프라노 김종숙, 클라리넷, 테너 오위영, 양두석 이 특별공연을 했다.

(박준호 기자)

## 이노비, 연말 릴레이 콘서트 개최

문화복지 NGO 이노비가 맨해튼과 퀸즈, 뉴저지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생애 마지막 단계를 쓸쓸히 양로원에서 보내고 계신 어르신, 어린이병원 입원 환자 등 가장 사랑과 따뜻한 나눔이 필요한 분들에게 ‘디지털 아웃리치’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찾아오고 있다.

12월 16일에 뉴저지말과 플러싱 코코칼엔센터의 특수교육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

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유튜브 브링크를 통해 열었다.

또 12월 18일에는 KCS 한인봉사센터 어르신들에게 줌을 통한 랜선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노비는 이외의 협력기관에도 콘서트 유튜브 링크와 줌 등으로 전달하는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이 콘서트 시리즈는 재외동포재단, 뉴욕총영사관, 조파운데이션, 윌리엄앤문자오즐레과

## 예수 십자가 사랑 나눈다

### 뉴욕나눔의집 웰터구입 후원의 밤 성료

뉴욕나눔의집 웰터 구입 후원의 밤이 12월 19일 오후 7시 30분 열렸다. 행사는 뉴욕만나교회에서 순서자들만 참석하고 교회에서 순서자들만 참석하고 CTS뉴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후원의 밤은 우진숙 국장(AM1660, K라디오) 사회로 나눔의집 소개영상, 지역 정치인 축사, 윤희기 목사 간증, 나눔의집 가족들 찬양, 특별연주 메조소프라노 박영경(오보에 흥서영, 피아노 경호현), 지역지도자 인사, 나눔의집 가족 간증, 후원방법 소개, 나눔의집 전문사역 소개 이계자 원장(뉴욕가정상담원)와 이수일 박사(정신과 전문상담가), 인사 대표 박성원 목사, 특별연주 성탄 메들리 트럼펫 차창현과 피아노 경호현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나눔의집 박성원 대표는 인사를 통해 “노숙인이나 홈리스라는 단어는 낯설고 편견이 있을 수 있다. 누구도 내가 노숙인이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 불황, 건강, 가정 문제로 노숙인이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아메리칸드림을 꿈꾸고 이 땅에 왔지만 신분 문제로 노숙인이 되고 또 중독이 돼 갈 곳이 없어 나눔의 집을 노크한다. 전문사역자들이 줌(zoom)으로 상담을 해줘 회

복되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나눔의 집은 상담에서부터 치료, 때로는 장례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새출발을 돕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1년에 한인 노숙인들을 위해 세워진 뉴욕나눔의집은 현재 플러싱에 있는 건물의 리스가 내년 6월에 끝나 다른 공간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며 이번 기회에 웰터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박성원 대표는 오히려 팬데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노숙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정부의 퇴거금지가 끝나면 봄부터 노숙자들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욕나눔의집 웰터 구입 후원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의 및 후원안내:(718-683-8884, nanoom-house9191@gmail.com △우 리은행 계좌번호: 0207013335 △모바일 후원:Zelle-thenanoomhouse@gmail.com △온라인 후원:http://www.nanoomhouse.com/후원하기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웰터구입 후원의 밤에서 나눔의 집 가족들 찬양이 진행되고 있다.



뉴욕가정상담소 제42기 자원봉사자 교육졸업식이 12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 뉴욕가정상담소 제42기 자원봉사자 4명 졸업

뉴욕가정상담소(이지혜 소장, 임에스터 이사장)가 12월 15일 제42기 자원봉사자 교육 졸업식을 갖고 5주 교육과정(25시간)을 이수한 4명에게 수료증을 발급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졸업생들은 뉴욕 가정상담소 산하 봉사자 모임인 ‘하모니’ 회원들과 임원들의 축하를 받았다.

42기 5명은 상담소 사회복지사와 변호사,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상식,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력, 마약/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의 연관성,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지원(

가정법, 이민법), 가정폭력 안전대책 제시방법,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주택선택과 경제교육, 기본 상담기법과 셀프케어, 성소수자폭력 실태, 피해자보상제도, 핫라인 윤리강령 등에 대해 배웠다.

이번 교육은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졸업생들은 향후 가정상담소 핫라인 전문봉사자로 주말과 상담소 운영시간 이후 시간에 걸러오는 24시간 한영 이준언어 핫라인 전화상담 및 신속한 피해자 서비스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사제공: 뉴욕가정상담소)

운데이션, 글로벌어린이재단(컬럼비아어린이병원콘서트), NV Factory의 후원으로 함께 한다. 이노비 연말 콘서트는 모

두 무료로 진행된다. ▲후원문의: (212)239-4438, happiness@enob.org (기사제공 이노비)



#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32)

##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전 유럽 국가들이 반기독교, 친이슬람, 난민, 동성애를 비롯한 퇴폐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2천여 년 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장엄한 고딕(Gothic)의 대형 교회들이 이제는 술집과 디스코텍, 아니면 이슬람 성전으로 속절없이 황망하게 무너져 몰락해가고 있다.

특히, 철옹성과 같았던 청교도의 가치와 정신의 미국이 친이슬람 정책과 진보주의 대법관 임명을 통한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후회, 전 세계 동성애 홍보 전파, 그리고 차별금지법 등등... 법령을 통한 반기독교, 반성경적 정책으로 인하여 청교도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한순간에 참담한 몰락(?)의 현장에 직면하고 있다.

잉글랜드에서 제 1차 대가

기 종말의 꼭지점에 살고 있는 한인 성도들 모두는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할 시점에서 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핵심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에 계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착한 일과 치유, 그리고 귀신을 축출할 수 있었다”라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 하시는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우리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이 위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야만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즉 믿는 자의 표적과 권세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제가 사라진 교회당에서 마치 관광객과 구경꾼으로 참관하듯 종교적, 형식적, 보편적 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들은 살아 계신 삼위 하나님께 주체적 진리의 단독자로서 신령과 진정함 마음으로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격과 기쁨과 환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다. 미국의 뿌리, “청교도 신앙과 정신으로 돌아가자”(Let's return to the Puritan faith & spirit) 즉, 5대 솔라(Sola)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

####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1620년 청교도(Puritan)들이 미국 신대륙에 이주해 온지 역사적인 400주년을 맞아 청교도 정신과 그 사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술했다. 청교도 사상(Puritanism)과 정신은 미국의 3대 사상인 서부의 프론티어(Frontier, 개척) 정신과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실용주의)과 더불어 미국 사상의 주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교도 사상은 단일정신 또는 사상 체계로서는 가장 오래 유지되었고, 미국역사 문화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청교도 운동은 하나의 교파 운동이 아니라 성공회교도, 장로교도, 회중교도, 침례교도와 같은 다양한 부류에 속하는 개혁자들에 의해서 칼빈주의(Calvinism) 영향 하에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운동이었다.

청교도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증거하고 있다. 이들 기독교 개혁가들의 슬로건은 “예정설”과 “믿음에 의한 의인(Justification by Faith)”, “성경은 모든 것의 지침서”이다. 특히 청교도들에 의해 저작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서, 소요리 문답서가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된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의 신학과 사상의 유일한 근거(根據), 핵심(Main Point)은 바로 성경이다.

청교도 회복 대각성 운동의 핵심 7가지를 정리해보면 1) 성경 중심의 삶이다(눅16:29, 31, 엡2:20, 계22:18-19, 딤후3:16). “이 모든 책들(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3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신·구약 성

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다.” 따라서 신앙회복운동의 시작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 복종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실천 운동이다.

2) 주일성수이다(출20:8-11). 청교도들은 십계명중 제4계명에서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금지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 즉 모든 부주의와 등한함, 또 게으름과 세속적인 일과 오락, 불필요한 없는 말, 생각들은 그 날을 더럽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주일성수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기쁨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천국 잔치 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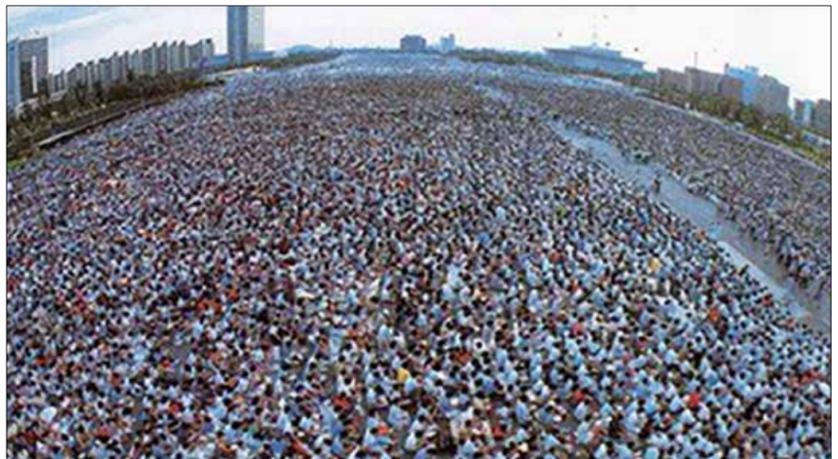
3)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다(엡6:4, 딤후3:15-17). 청교도들에게 가정예배의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다. 기도, 성경봉독, 찬송이다. 즉, 매일 아침과 저녁, 성경 봉독과 기도, 시편 찬송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예배가 있으며,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는 바로 열심히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의 복을 누리는 노동운동이다.

5) 교회의 주인(머리)이신 예수 운동이다(골1:18).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사람의 권위가 지배하는 세속적 교회가 아니라 왕중왕으로서 오직 예수께서 으뜸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의 정치, 문화, 경제계를 이끌어왔던 인물 대부분이 청교도의 후손이며 청교도적인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청교도 운동은 성육신(成肉身)적 윤리, 도덕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청교도 운동을 주도한 지도자들은 이주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 청교도 회복 대각성 운동 핵심 7가지: 성경중심 삶, 주일성수, 자녀신앙교육, 직업소명의식, 예수운동, 청지기정신, 빛과 소금 역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주의 은혜와 교훈으로 반드시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고 양육하는 운동이다.

4) 직업은 천직(天職), 즉 소명의식이다(살후3:10).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한 사도바울의 말씀은 참 중요하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직이다. 노동을 하고 일할 양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비결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신 이유

이신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다.

6) 재물에 대한 청지기 정신(마25:14-30-5, 2, 1달란트)과 십일조(말3:10) 운동이다. 즉,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를 위해 쓰라” 라고 실천적 삶의 모범을 보인 요한 웨슬레처럼 청지기 사명 운동이다.

7) 대 사회적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마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신을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도시대 이후 교회사에서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을 꼽으려면 청교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추천한 로이드 존슨의 말처럼 청교도들은 오직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빛과 소금”의 진실된 성도들이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청교도 미국 이주 400년의 21세기 현대 정신(時代精神, Spirit of the Age)과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종교개혁의 진원지인 독일과 스위스, 영국을 비롯한

성운동이 일어나기 28년 전인 1706년 코튼 메더(Cotton Mather, 1663-1728)는 당시 청교도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기독교가 부패하였음을 고백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1736년에서부터 1749년에 그가 시무하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두 차례의 엑스포(Explo) 74(1974년 8월 13일 서울 여의도광장) 영적 대각성(1734-35, 1740-42)의 역사를 체험한 것과 같이 21세

를 통한 “오직 성령”(Only the Holy Spirit)의 기름부음이 충만할 때, 케노시스 예수정신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Man of God)으로 치유, 승화될 수 있다. 또한 세계 선교와 목회 사역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모든 생명부흥운동이 영혼구원의 충만한 약동성으로 큰 열매 맺힐 것을 확신한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kimjoyh@gmail.com

(끝)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엘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화):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화):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화):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전양):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b>살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항찬양예배: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유,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787-8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3)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토요일: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 예수교회</b>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804)560-7500, www.jjk.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m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927-0630, www.kuc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새해 첫날 12시간 릴레이 기도회

‘원크라이’ 온·오프동시 진행...교단·교파초월 14명 설교

새해 첫날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릴레이 연합 기도회가 열린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기도연합운동모임인 ‘원크라이’는 16일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동안 제5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크라이 실행위원장 황덕영 새중앙교회

목사는 “성경을 봐도, 교회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다”며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지만 지금은 더욱 기도가 필요할 때다. 2021년의 시작을 함께 기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크라이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이사가 43장 19절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로 정했다. 황 목사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

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터널 자체가 빨리 가기 위한 목적으로 뚫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며 “지금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도회에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14명의 목회자들이 설교자로 나선다. 함께 기도회를 준비하는 오인석 능곡감리교회 목사는 “과거엔 교

단이나 교파를 떠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다”며 “이번에도 많은 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원크라이 측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기도회를 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직접 기도함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가 다문화시대 앞당겨...”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줄었지만, 결혼 이민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선교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현상을 코로나19가 앞당겼다고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선교 전략에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정기선 교수의 ‘코로나19 이후 내·외국인 출입국 및 외국인의 국내 체류 현황 변화’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매년 발표되는 ‘한국의 사회동향’은 국민의 생활과 사회의 변화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 종합사회보고서다.

정 교수의 보고서를 보면 매년 늘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252만명에서 올해 4월 현재 218만명으로 감소했다. 유학과 단수가능직 부문 외국인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유학이나 연수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18만1945명에 비해 올해 4월 현재 16만7449명

으로 8.0% 감소했다. 비전문 취업비자(E9)·선원비자(E10)를 받은 외국인과 방문취업비자(H2)를 받은 외국인도 같은 기간 각각 4.2%, 5.1% 줄었다.

반대로 결혼이민자는 지난 4월 현재 13만2998명으로 1.5% 증가했고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자격을 받기 위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도 1.5% 늘었다.

최근 선교 기관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 선교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보고서 내용은 향후 선교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션파트너스 한철호 대표는 16일 “통계청 자료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시대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도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 선교를 타문화 선교로 봤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한국인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교회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처럼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김한성 교수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자국민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서 “기존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외국인 대상으로 진행하던 복지 구제 등의 사역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 “무슬림 근본주의자 국내유입 막기”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성명내고 대책 촉구

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인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은 지난 10월 프랑스 남부의 휴양 도시 니스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에 대해 논평을 내고 무슬림 근본주의자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튀니지 출신 이주자인 테러범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들고 니스의 한 성당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살롬나비는 14일 “프랑스 테러는 유럽과 이슬람의 갈등이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경계선에서 발생한다는 미국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명제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무슬림 온건주의와 근본주의를 구분하고

찾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국에 온 자녀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경우 기독교 대안학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교회와 선교기관이 연합해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과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주의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살롬나비는 “무슬림 평화주의는 허용돼야 한다. 온건주의 무슬림도 근본주의와는 다른 평화의 종교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면서 “난민과 이민자에게 인도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되 무슬림 근본주의자, 과격주의자는 엄격히 조사해 걸러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믿으나 타 종교를 존중하고 이들과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기독교연합단체들과 연대해 종교·인종 간 평화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Z세대 맞춤 선교전략을 찾아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학술대회서 주장

‘첨단기술에 뿌리 내린 Z세대 대학생을 위한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회장 이대성 교수)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루스체플에서 연 학술대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제로 Z세대에 접근하기 위한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20세기 마지막에 태어난 세대가 포함돼 있어 알파벳 마지막 문자인 Z가 붙었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 진행됐다. 루스체플에는 10명 이하의 관계자만 참석했다.

‘디지털 원주민 Z세대’에 대한 대학선교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천사무엘 한남대 교수는 종교개혁자 장 칼뱅(1509-1564)의 발언을 인용했다. 천 교수는 “칼뱅은

가인의 자손 중 기술자들의 조상이 된 자들을 언급한 창세기 4장 20-22절을 강조했다”면서 “이를 통해 예술과 생활용품의 발명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선물이며 칭찬받을 만한 능력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서는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면서 “일례로 출애굽 한 세대는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광야에서 소멸했지만 새 세대는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성서의 사고는 대학선교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Z세대의 등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선교에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면서 “Z세대의 문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새로운 선교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전한 과학기술과 선교 전략이 양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한 셈이

다. 그러면서 “새 세대에게 맞는 선교방법이 이들이 지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게 하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영성이 자신들의 삶에 유익하다는 긍정적 시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주형 연세의료원 교수는 논찬에서 Z세대를 위한 선교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독립적 개체로 인정 받으려는 Z세대를 위한 개인 맞춤형 돌봄 사역’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교 콘텐츠 개발’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를 성경과 기독교 전통 안에서 정적 시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후 정기총회를 연 목회회는 천사무엘 교수를 회장에 선출했다.

## 복음의전함 유튜브 5만8000명 조회

1억8000만원 성금...성탄메시지 가득한 온라인 예배

복음의전함의 온라인 연합 찬양예배 유튜브 콘텐츠에 5만8000여명이 참여해 1억8000여만원을 후원하는 경이적인 기록이 나왔다.

18일 복음의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카톡메시지를 통해 지난 13일(주일) 저녁에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 캠페인” 선포 및 연합찬양예배(프레이즈게더링)에 대해 16일까지 5만8000명이 유튜브를 통해 참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 규모는 1억8000여만원으로 중간 집계됐다.

고 이사장은 “기도해 주시고 재정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후원된 금액은 전액 전국 복음광고 버스과 택시운행을 위해 사용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은 “동역회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한번 고백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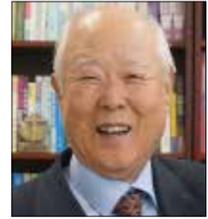
이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라는 문구를 불허하고 있는 울산·포항·부산·아산지역 관계기관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살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성돈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대표는 18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자살 예방 정책이 사회적 환경 개선보다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료에 집중돼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자살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예수 탄생의 의미를 시대적 메시지로 선포할 성탄절을 한국교회가 생명의 존귀함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임용택 라이프호프 이사장은 “한국교회가 올해 성탄절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되돌아보고, 성도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웃의 생애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원로칼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 주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하-2)

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저는 오늘의 이 혼탁한 시국에 고뇌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대안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특히 함2:1-4, 14절). 주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살던 시대를 직시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던 시대는 정미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수단 좋은 사람, 양심불량인 사람, 정권에 아부하고 붙어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명예도 얻습니다. 반면에 법대로 살고, 양심대로 살고, 진실하게,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밟혀 사는 참으로 억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은 타들어만 갔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의심하기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어째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박해를 받는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예민한 눈으로 당시 국가와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눈을 지으신 분이든 어찌하여 오늘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왜 보지 못하시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입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찌하여 말씀이 없으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억울하고 낙심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결사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아닐까요? 그렇게 낙심하고 고뇌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란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전사들이고, 세상의 이권단체나 이념 단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목사, 장로들이 주의 몸 된 교회를 지키고,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의 내용보다는 심리학과 경영학에 의존했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결국 서양의 기독교가 퇴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유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 인본주의 사상에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그 후유증이 매우 오래 갈 거라고 내다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붙들고,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걸고 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에서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시119:105).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만 넣어두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 삶의 한 가운데서 적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사상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등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칼빈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도록(Pro Rego)해야 합니다. 우리가 늦었지만 한국교회는 제대로 된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조직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꼴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것 밖에 없습니 다. 요즘 사람들은 꿰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세상을 얻어 버리려는 생각까지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께서 오늘의 상황을 선악 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잠시 잠깐 동안 악의 세력이 이기는 듯해도, 결국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경험으로 봐도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살아남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셋째는 시대의 아픔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낙심된 순간에 있을 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이고, 구원의 메뉴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에게 주신이 메시지는 600년 후에 사도바울에게 전파 되었고, 다시 1500년 후에 교회 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요한 칼빈(John Calvin)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130년 역사 가운데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대면에 배니 비대면에배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판하고 친정부니 반정부니 하면서 서로 대결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비록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기독교 정신과 기도로 세운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대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것도 맞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서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고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 “우울증과 영적 치유” (3)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영적 처방: 4.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당신이 어느 상태인지 알게 되었는가? 이 평가서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혼란스럽고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왜 슬프고 우울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와 성경 말씀 읽기에 얼마나 생각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뒤튼린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그러

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묵상

### 자신 마음 표현해주는 시편 기도문 읽기, 영적 멘토 찾기, 기독교적 읽기 성경읽기 방해하는 사탄 쫓아내고 눅4:18-19 암송하며 하나님 뜻 찾아가

을 병행하며 말씀으로 자신에게 말을 하라.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하라.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음성과 맞설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

정적, 비판적, 파괴적 음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곳에 적용하는 법을 배울 때 치유가 온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길이 험퉁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다(수 1:1-9).

30일 동안 성경 읽기: 감정적, 영적 아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습관을 길러라.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를 읽고, 하나님의 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이해력을 주실 것이다. 위로를 주는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은 명철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시편의 기도문을 찾아 읽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루 종일 마음을 어루 만져주는 성경구절을 찾아서 묵상하고 암송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목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잠

음이 되는 기독교 서적을 읽어라.

잘못된 성경해석에 대항하기: 우울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뒤튼기 때문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한다. 혼란스럽게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성경 읽기를 그만두지 말라.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꾸짖어 쫓아 보내고 계속 읽어라.

누가복음 4장 18-19절을 암송하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영적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자유롭게 못한다면,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없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하라. 당신이 주 안에서 누구이며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기도: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저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마귀의 공격과 거짓으로부터 저를 감싸 보호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정확한 성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서 저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주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nghui.mcdonald@gmail.com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 서론 4장 /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눈에 파악하기(신약)

진정한 왕이 오셨다(마-요)

1. 이제 구약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의 모든 기록을 뒤로하고 때가 차매(갈 4:4-7)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성취이자 완성이며(마5:17)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요 14:6) 자체로 오신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불러진 것처럼 애굽에서부터(호11:1/마2:15) 그 과정을 반복하여 거치시며 그들이 보여준 불신앙의 역사(신 9:24)가 아닌 온전한 순종의 역사로 살아내십니다(눅 22:42/요4:34, 5:30, 8:28, 42/갈1:4).

3.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시절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심(마4:1-4)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채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출16:2, 17:3/민 11:1, 14:2, 21:5)과 대조되는 삶으로 살아내십니다. 4. 그리고 마침내 공생애 사역을 시작(눅3:23)으로 가나안에서의 삶을 사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십니다(마27:45-50/막15:33-41/눅23:44-49/요 19:28-30).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종(레25:55)으로 살아가야 했던 땅 가나안에서 왕으로 살다 멸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의 왕(답전 6:15,16)이셨지만 그들의 삶과 대조적으로 종으로 순종의 자녀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왕을 전하라, 땅 끝까지(행)

1.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

16:15/눅24:46-48/요20:21/행1:8).

2.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구원의 길, 하나님의



### 진정한 왕이 오심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미암아 열린 구원의 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행1장-8장3절)와 사마리아(행8장4절 이후)와 땅 끝까지(행8장26절 이후)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마28:18-20/막

나라는 계속해서 저항하는 사단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확장되어 갔습니다. 3. 그리고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모임인 교회

가 세워지고 그들의 신앙은 말씀을 중심으로 박해와 핍박 중에도 견고해져 갔습니다.

진정한 왕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의 삶(롬-유)

1. 사도들의 서신서들은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롬1:4, 3:25, 4:25, 8:34/고전1:30/엡2:20/

이 버리고 멀리할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롬13:13,14/고전5:9-13, 6:9,10/갈5:19-21/엡4:30-32, 5:3-5/골3:5-8/살전 4:3-8/딤후3:2-4).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계)

1.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당장은 역사에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계1:1-3:22, 12:1-13:18)이 있겠지만 다시 오실 심판자이시며 왕의 왕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선포합니다(계4:1-5:14).

2.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계19:1-10)에 거룩한 신부로 설

하십니다

1.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시53:1-3/롬 3:10-12, 23).

2.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사44:22, 55:7/렘 3:12,14,22, 4:1, 25:5/호14:1/을2:12/속1:3/말3:7). 그리고 그 돌아옴의 길은 우리의 행함의 의가 아닌 죄인으로 죽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요3:3-5), 하나님의 의(롬3:19-28/고후5:21/갈2:16/빌3:9)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3.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임을 말합니다(창23:4, 47:9/대상29:15/시39:12/히 11:13/벧전2:11).

4.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끊길 수 없는 사랑(롬8:38,39)을 말합니다. 인간의 불가함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범죄가 드러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역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

### 선교지 소식

### 북인도

할렐루야! Merry Christmas! 한 해를 보내는 끝자락에서 인도선교와 저희 가정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며 11월 현장선교 보고 및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어린이 4역

인도 학교는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슬럼어린이들에게 영어와 힌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렉크나우 지역에서 4역하고 계시는 데이빗 목사님이 프리스쿨을 오픈하였습니다.

4군데에서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시간씩 4분의 선생님

들에게서 영어와 힌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따뜻한 신발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면 참으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

7개 지역의 신학교 분교에서는 지역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으로 서로 토의, 의논하며 공부하기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4역하기에 부족함 없이 훈련에 훈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충만함으로 지도 목사님의 지시에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멜리 성전건축

아이스크림 장수가 평생동안



모아 땅을 사서 하나님께 헌물한 그 땅위에 작년년부터 성전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중 막바지에 이르러 은행에 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여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백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힘닿는 대로 도움으로 하나님의 집이 인도 수도 델리에 우

뚝 세워진다면 3역3천의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 우상소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기둥으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람뿌르 센터

이번엔 람뿌르 센터에서는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힌두를 반대하는 정치인들과 주민들,



크리스천들이 저희 센터에서 모임을 가졌고 현지인 목사님은 20분간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인도에 가난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힌두, 지주인 힌두들,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국가로 거듭나길 이번 모임을 통해 간절한 간구를 올립니다.

미전도종족들이 예수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북인도 땅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며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주&전하라 가정 올림 jung55353@naver.com

#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 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시9:1-3)

시편 9편은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뜻은 "어떤 상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 없이 온전히 감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전심으로 감사하나요? 첫째로 원수들이 "주의 앞에서" 물러감에 대해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수도 없이 다윗을

공격했지만 다윗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전쟁은 다윗이 나가서 싸웠는데 오직 주님께서 적을 물리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할 때가 많은데 지나놓고 보면 정말 신비하게도 잘 해결 돼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앞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 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시9:4-8)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변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 5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고 성도들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변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본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나의 의"는 심자가 의의 은총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자가 의의 은총으로 맺어진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신 그 주님의 의가 이미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 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시9:9-10)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9,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을 당할 때 강하게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압제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붙잡아주십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강

하게 붙잡아주시며 주님을 찾는 자를 단 한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한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늘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을 아는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항상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목 나를 공홀히 여기소서(시9:11-13)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다가 이제 성도들에게도 함께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지금 주님은 시온, 곧 교회에 거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펠전은 "이 기도의 사다리는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서 하늘까지 다다른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공홀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는 "정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곧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공홀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 금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시9:13)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공홀을 구하며 기도드릴 때 이 기도는 하늘에 상달돼 우리에게 응답해줍니다. 특별히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같이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

으키는 주님"을 찬양하며 공홀을 배부시기를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느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도와주시고 어떤 것은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한없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라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토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시9:14)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홀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14절). 기도하는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응답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이유가 함께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셨고 주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 코로나(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10)

코로나시대를 위한 교회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10회 정도의 분량으로 글을 쓰기로 하고 첫 회를 시작한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를 맞게 된다. 코로나는 분명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변화를 야기 시켰다. 코로나는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촉발시켰고, 경제적 궁핍을 초래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미국인 3명중 한 명은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불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Federal Emergency Health Line에 도움을 호소하는 텍스트가 1000% 증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아틀랜틱신문 7월 2일자 보도).

그들의 입을 통해 자녀가 변화되도록 구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희갑 목사

(이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코로나로 인해 Stay-at-home order가 내려졌고, 학교가 문을 닫고 주일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러지는 등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지만 정작 더 큰 피해는 올 연말 내년 초에 아마도 피크에 달할 거라고 예상한다. 이로 인해 벌써 두 학기 짝 우리의 자녀들은 친구와 만나지 못하고 선생님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박탈당할 채 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아이들의 심리는 많이 다운되었고 아이들이 느끼는 트라우마는 코로나와 결부되어서 그 상태가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Cortisol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Cortisol 호르몬은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상당수준 감소시킴으로 아이들을 부적응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집은 있지만 감정이 없는 아이들의 절규를 하나씩 들으셨을 까? 코로나로 인해 부모는 자녀와 함께 뒹굴고 비로소 자녀들을 살갑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로인해 부모들은 자녀를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교육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교회는 부모를 자녀교육의 1차 책임자로 돌려드려야 한다. 교회학교가 부모를 섬기기 위한 보조역할이 아닌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교회학교를 발전시키도록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교회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입안에 부모가 적극 개입하고, 실천하고 이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둘째, 교회학교 교사교육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비드는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한 학습기회를 앗아 버렸고 이로 인해 지적, 정서적 발달을 상당히 무디게 만들어 버렸다. 코비드가 시작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어려워지자 아이들의 수학과 읽기능력이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

# 교회교육은 1)영성교육 2)리더십교육 3)시대정신에 대한 이해 포함해야 자녀교육 1차 책임자는 부모...교회는 유능한 교사 모집해 양육에 전력

방향에 대해 논의할 때다.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보던지 간에 하나는 확실하다. 그것은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5월 시카고대학에서 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기독교인들의 63%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배울 것을 말씀하신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는 자에게는 더욱 성장하고 활성화되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그렇다면 교회교육에 주는 메시지 역시 분명하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난 1년간 겪어오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앞으로 교회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가?

## 코로나 세대를 향한 교회교육의 방향

첫째, 코비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교육자가 바로 부모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한다. 웨마교육의 시작은 부모였고, 자녀를 훈계하는 교육권은 부모에게 주어졌다.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녀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부모는 조력자의 역할에 만족하게 되었다. 학교교사, 학원교사,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에게 자녀교육의 키를 던져놓고 부모는

자 교육당국이 근심하고 있다. 코비드가 끝나고 New Normal이 오면 학습기회를 빠른 시간 내로 회복되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교회에서도 그동안 미진했던 아이들의 영성교육을 다시 되돌리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를 수행할 수 있을까? 바로 유능하고 비전 있는 교사를 통해 가능하다. Teaching with style이라는 책을 저술한 Bruce Wilkinson은 이 책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의 학습성취도가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교사들의 역량(스타일)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교회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하는가? 유능한 교사를 모집하고 양육하는데 전력을 쏟아라! 지금은 이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교회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점검해보자. 교회는 예배공동체이자 섬김의 공동체요, 선교의 공동체이자 친교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코비드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회가 친교,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영적교육의 현장이다. 아이들을 성경박사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장침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세브로트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윌리엄스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353.2424 뉴저지 | 201.945.2009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불화산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열심'은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합니다. 열정과 질투를 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불같은 질투를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불길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열심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라 하리라"(사7:14) 그리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9:6-7).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세

상의 구주로 보내기 위해 열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오도록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구세주가 탄생하기까지 쉬지 않고 달리셔서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열심으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야기 예수를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피를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질투요 열심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열심이 내안에서도 불화산(火山)처럼 타올라, 사랑의 불을 내뿜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 12:11). bible66@gmail.com

시론

(3면에서 계속)

더 나아가 그 성취가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실행되므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가 시작한 종말의 새 시대를 살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여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여 그 새 시대의 절정기적 삶을 살게 될 것

을 확인시켜주면서 그날까지 성도들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성전으로 확장하며 영광스럽게 해야 할 사명을 성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죄로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을 통하여 다시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하는 신비로운 인생을 살게 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출생이 없

었다면 이러한 신비로운 인생은 결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출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던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거룩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날, 일생동안 믿음이 주는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편집자: 지난 2년간 '시론'을 집필해주신 김인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기에 감사하다. 함께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를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함께 고통을 느끼며 다듬어 주면서 나아가자. 함께 말해보자. "괜찮아, 너만 어려움을 느끼는 건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고통하고 있어.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가자" hlee0414@gmail.com <끝>

코비드 (COVID-19)...

(14면에서 계속)

그러서 필자는 교회교육의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가 영성교육인데 이는 삶에 적용되는 신앙을 의미한다. 둘째는 리더십교육이다.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셨으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영적 달란트를 확인하고 개발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 교육이다. 마지막은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우리에게 행해야 할 특별한 미션과 과제를 부여해 주셨다. 21세기 갈등과 재해(코로나를 포함한), 양극화 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도록 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교회는 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해야 한다. 이제 글을 맺는다. 우리는 코로나가 분명 고통이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23.가정을 살리는 4가지 생명의 씨

가정은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 구성요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세속화, 사회적 급변, 경제적 위기, 정치 문화적 혼돈 가운데 가정이 기를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죽으면 결국 자동적으로 교회, 사회, 국가도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 구성요소는 부부입니다. 기를 잃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는 최고 최선의 방법은 온전한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4가지 생명의 씨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부관계에서의 '맷씨, 솜씨, 말씨, 마음씨'가 어떠한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의 성향에 자신을 철저히 맞추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개성을 살리면서 부드럽고 상냥하게 다른 식구들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지혜로운 태도가 바로 가정에 요구되는 솜씨입니다. 특히 시누이 올케간, 동서간, 고부(姑婦)간의 갈등문제는 부부관계를 이간질하여 마침내 가정이 파탄의 경지에 이르게도 하므로, 아내, 올케, 동서, 며느리의 위치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가정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기에 부부간의 솜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 후 지금까지 한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항상 "나는 설거지처럼 쉽고 재미있는 일이 없어!" 하면서 설거지를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설거지가 무엇이 그리도 재미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행동에는 "당신은 해야 할 보다 큰일에 신경 쓰세요!"라고 하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처럼 식구들은 고마워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발굴해서 서로에 대한 고마운 감정을 잃지 않는 마음씨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 1. 맷씨가 필요하다. 가정은 사회생활하면서 죽은 기를 신비하게 살려주는 곳입니다. 기를 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구들끼리 용기 있는 말로 서로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3. 말씨가 필요하다. 가정은 사회생활하면서 죽은 기를 신비하게 살려주는 곳입니다. 기를 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구들끼리 용기 있는 말로 서로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

- 3. 말씨가 필요하다. 가정은 사회생활하면서 죽은 기를 신비하게 살려주는 곳입니다. 기를 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구들끼리 용기 있는 말로 서로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

관심과 사랑은 동의어입니다. 아내의 바가지는 관심의 표현이며, 부부싸움은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배려는 '배우자의 감정을 다치지 않고, 고통, 고생, 근심을 덜어주거나 없애 주려는 관심' 또는 '배우자를

맷씨, 솜씨, 말씨, 마음씨가 가정을 살린다

- 2. 솜씨가 필요하다. 솜씨는 자기 외의 다른 식구들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는 사려 깊은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개성을 무시하면서 다른 식구

- 4. 마음씨가 필요하다. 여보!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남편이 "여보! 내가 다 알아!"라는 말 한마디가 산더미 같은 아내의 피로를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잘 하면 천냥 빚도 갚는다"는 격언도 있고, 한번 얼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한번 뱀은 말은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말합시다. 부부간, 가족간 대화에서 칭찬과 위로, 은혜와 덕스러운 말, 감사와 축복의 말,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씨가 필요합니다.

편하게 해주는 이기심 없는 관심'입니다. 관심과 배려의 마음씨가 필요합니다. 토마스 카알라일은 아내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40년 동안 아내는 나의 진실한 친구였다. 남편이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인지에 그 말이나 행동으로 걱정을 끼친 일이 없었다. 그녀를 잃은 나는 생의 빛을 잃은 것처럼 캄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 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회한을 가지기 전에 그가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밝은 빛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높여주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campus building and fountain. Text includes: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Midwest University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사역 개발 분야-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제출서류: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제출기간: November 20, 2020; 제출처: jp@midwest.edu

# 2020 본지가 보도한 미주한인교회 10대 뉴스

2020년, 코비드와 함께 했지만 미주내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 나누는 행보를 걸어왔다.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인들을 연결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낙심도 되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며,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코비드 가운데 2021년을 소망 가운데 기대해본다.

## 1. 연합감리교회 교단상향 설명회 (1767호 1면)

지난해 2월 특별총회 이후 시작된 미연합감리교회(UMC)의 진통이 새로운 연합감리교회의 출범으로 이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이에 대한 설명회가 남가주 주님의교회에서 2월 16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중 주님 품에 안겼다. 고 손인식 목사는 고려대재학중 워싱턴DC로 이민(1973), Washington Bible College(BA), Capital Bible Seminary(M.Div.)를 졸업했다. 1990년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2013년까지 목회했으며 은퇴 후 그날까지선교연합 국제대표로 미국, 한국, 유럽을 오가며 북한동포를 위한 복음사역을 활발히 펼쳐왔다.



## 4. 부활절연합새벽예배 못하지만 기부행진 (1773호 10면)

뉴욕과 뉴저지 등 각 지역 교회가 주관하는 부활절연합새벽예배는 2020년에는 할 수 없게 됐다. 해마다 부활절 새벽에 가졌던 남가주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됐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뉴욕일시중지(New York on pause)" 명령이 4월 29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도 시던센터와 연계해 교회론 받기 세미나 등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 5. 본지 2대 발행인 장영춘 목사 별세 (1774호 1면, 16면)

본지 2대 발행인이며 퀸즈장로교회 원로 장영춘 목사가 성금요일인 4월 10일 오후 4시50분 뉴욕장로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본지 발행인으로 26년간 재직해온 장영춘 목사는 퀸즈장로교회를 개척



(1974년)하고 목회했으며(2012년 은퇴), 동부개혁신학교 학장(1987- 2017)과 미주크리스천신문사 발행인(2018년말 사임)으로 재직했다. 장례예배는 4월 17일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본당에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실황이 livestreaming으로 중계됐으며 전 세계에서 850명이 동시 접속했다. 하관예배 역시 직계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전 10시 장지 파인론에서 드러졌다. 유족으로 장미는 사모와 사이에 1남2녀가 있으며 장남 장훈 목사는 시카고병원 원목, 장녀는 목사사모다.

## 6. 제69회 국가 기도의 날 한인교회 동참 (1777호 1면)

지난 7일 제 69회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미주 전 지역에서 기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교회와 뉴욕교계와 뉴저지교계도 합류해 기도회를 개최했다. 하박국 2장 14절을 주제로 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순서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진행됐다.



## 7. LA 한인들 평화시위 동참 (1781호 9면)

조지 플로이드의 과잉체포로 인한 사망으로 미 전국에서 항의시위가 연일 이어진 가운데 주말인 6일 LA한인들도 경찰폭력과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평화시위에 동참했다. 'BLM(Black Lives Matter·흑인 생명도 소중하다)을 지지하는 아시안·태평양 주민모임'이 주최한 이날 시위는 LA 한인타운내 윌셔파크 플레이스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 8. 펜데믹 시대 선교...어떻게 하고 있나 (1785호부터)

펜데믹 상황 하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선교기관들을 소개했다. ① Vision 800 Global(대표 이준성 목사, 1785호) ②Son미니스트리(대표 김정환 선교사, 1786호) ③남가주말선교단(대표 이종희 목사, 1787호) ④ PGM(국제대표 호성기 목사, 1788호) ⑤살롬장예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1790호) ⑥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 1792호) ⑦나눔선교회(대표 한영호 목사, 1798호) ⑧오네시모선교회(대표 김석기 목사, 1799호) ⑨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1801호)



## 9. 동양선교회 재정비리 의혹제기 (1801호 9, 10면)

동양선교회(OMC)의 일부 교인들이 김지훈 담임목사의 재정운용 문제의혹을 제기하며 사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교회 측은 분란을 일으키려는 일부 인사가 억측에 불과한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지훈 담임목사의 퇴진을 주장하는 일부 교인들은 교회의 재정현황조사를 위한 전수조사 위원회가 지난해의 재정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목회활동비가 과다지출 되고 당회결결 절차 없이 무단 인출된 금액 등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LA경찰국(LAPD)에까지 공식 수사를 요청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해명이 없을 경우 담임 목사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 10. 남가주 한인정치인 당선축하 감사예배 (1804호 9면)

지난 11월 3일 실시된 선거에서 남가주 지역에 미셸박스틸(48지구 연방하원), 영김(39지구 연방하원), 데이브민(37지구 가주상원), 최석호(68지구 가주하원), 테미김(앨바인시), 프레드정(플러턴시) 등 6명의 한인 정치인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뤄 이를 위한 축하예배가 11월 28일 오전 11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6명의 당선인중 미셸박스틸, 영김, 최석호, 프레드정 당선인 등 4명이 참석했다.



(편집부)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 응시자격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 고시과목

- a) 필기고사: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 (이상 4과목)
b) 제출고사: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 4편)

### 제출 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 창22:1-19
(2) 신약주해 : 마5:1-12
(3) 논문제목 :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를 논하라
(4) 설교원고 : 약5:7-11 / 암8:11-14
-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고시를 치름.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제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결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조성훈구약주해.pdf)
-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c) 면접고사

### 서류제출요령

- a)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1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5회 총회기간(5월 18일~21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합격 증서 수여함.

### 고시일자 및 장소

- a) 일자: 2021년 5월 11(화) - 12(수)
b) 장소:
동부: 퀸즈장로교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김성국 목사)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서부: 대동장로교회(Dae Hung Korean Church, 권영국 목사)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응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양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 년도와 교회, 세례집행자) 1부
f) 명함만 사진 2장
g) 고시료: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송일용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1일-12일 총회시강소) 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 제출처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주소 : 1641 W. 185th St. Gardena, CA 90248
전화 : (818.282.0112) / 이메일 kapcpastor@gmail.com

###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 김재호 목사 (Rev. Kim Jae Ho) ezrakim59@gmail.com (C) 646.270.5987
b) 고시부 서기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kapcpastor@gmail.com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조문취 목사
서 기 :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